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일 청소년교류 스포츠 공공외교:
택견과 해동검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김 연 태

2021년 12월

대일 청소년교류 스포츠 공공외교: 택견과 해동검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진 호

김 연 태

이 논문을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김연태의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년 12월

The Sports Public Diplomacy of Korea with Japan:

- Focusing on the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Youth Exchange -

Kim, Yeon Tae

(Supervised by professor Jin-H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olitical Science

2021.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2021. 12.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감사의 글

무엇보다 첫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향 전북 군산을 떠나 6년 6개월의 시간을 제주도에서 홀로 보내면서 기쁘고 즐거운 날도 많았지만 힘들고 외로울 때도 많았는데,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은 저의 피할 바위와 강한 용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기 일쑤고 몸은 직업 현장에 있어도 정신은 논문에 가 있는 일상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었는데,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하고 감사의 글을 쓰는 시간이 오니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번 논문을 쓰면서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하는 시간과 땀과 노력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제 무지함과 부족함도 너무나 뼈저리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주위 분들의 격려와 도움과 조언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논문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논문을 지도해주시고, 논문뿐 아니라 학업과 인생진로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해주신 김진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직업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 적절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본 논문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학업적 지식이 부족할 때도 역시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공민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논문임에도 꼼꼼한 지도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무사히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주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못했던 저의 논문 심사를 흔쾌히 맡아주시고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셔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연구와 사례연구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논문 연구를 제안하며 용기를 준 김정훈 조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세세하게 제 일정을 챙겨주신 안경은 조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제 안위를 걱정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던 군산경암교회 서정태 목사님과 장재학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고 언제나 사려 깊게 도와주신 군산동부교회 이동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이 없던 20대 시절 제 곁에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저를 지켜보며 눈물로 기도해주신 군산 Haven Baptist Church의 Jim Taylor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을 제대한 후 세상 물질 모르고 망나니와 같이 날뛰던 저를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안내해 주신 군산지곡교회 양성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소소한 일상도 공유하며 항상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저의 문제를 상담해 주신 문하영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고 살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 문제에 대한 조언과 격려에도 심사숙고하시는 서재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신 방주교회 임장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릉 경포대교회 김진해 목사님, 필리핀 선교사 최겨라 목사님, 미국 선교사 신춘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칼이었습시다.

저에게 택전을 가르쳐 주신 박성호 선생님과 해동검도를 가르쳐 주신 박희삼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남 진해에서 해군에 복무할 때 친동생처럼 따라다니며 저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던 군대 동기 박영웅 군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국땅 호주에서 뜻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군 전역 후 대학교에 복학하여 공부할 당시 유도관에서 운동하는 것은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를 돌봐주신 군산유도관 황은성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에서 힘들게 고생할 때 곁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경찰 선배 김태형 형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나를 웃게 해준 경찰 후배 김성수 군에게 감사드립니다. 경찰관 동기이자 믿음의 동역자인 문단비 군에게 감사드립니다. 경찰에 입직

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생했던 경찰관 동기 강민혁 군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모님의 심정으로 부족한 업무를 도와주신 박운용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찰관의 업무를 하면서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것을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부경호 팀장님과 김충현 팀장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고향 전북에 새로이 경찰특공대가 창설되면서 함께 근무하게 된 전북경찰특공대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폭발물처리팀 팀장님 이하 팀원 모두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허물없이 다가가서 나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 이상봉에게 감사합니다. 친구 박진우, 이승남, 이재익 형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석사학위 논문 연구를 먼저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게 적절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친구 김민영 양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제 인생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도전을 피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며 인내의 삶을 사신 부모님께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빠의 성공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논문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동생 김미정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든든한 사랑하는 매제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매제는 언제나 지혜로운 든든한 지원군이자 우방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조카 예지와 예니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조카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고모님들, 이모님들, 작은아버지들, 외삼촌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넘치는 애정과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칠순에 맞춰 논문이 완성되게 하시며, 공수래공수거(空手來 空手去)인 인생에서 이렇게 논문으로 삶의 흔적을 남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논문을 아버지의 칠순 선물로 바칩니다.

2022년 1월

김 연 태

국문초록

대일 청소년교류 스포츠 공공외교: 택견과 해동검도를 중심으로

한국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시절 우리가 받은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난과 고통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암울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고, 그 후로 오늘날까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왔으나,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공동선언(일본어: 日韓共同宣言)을 맺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협력 및 친밀한 관계임을 다시금 확인하였지만, 아직도 과거사 청산 문제와 영토 영유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겠지만, 지난날의 아픔을 씻고, 상호 간 화해와 협력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의 개선을 위해 민간차원에서부터 차근차근 신뢰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교류에 역점을 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with an emphasis on youth exchange through sports)」를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미래 세대 일본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상대로 기존의 학술교류에 덧붙여 우리의 전통 무예인 택견과 해동검도를 가르치고 수련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도록 하여 전통 무예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한다면 한국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 민족의 전통 무예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상고사(上古史)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스포츠(전통무예)를 통한 교류는 공유된 소통의 감정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여 동질 의식과 동료애를 더 잘 느끼게 하므로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청소년들도 스포츠 교류의 한 부분으로써 일본의 무도를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일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상호 간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이 한층 더 수월하게 될 것이다.

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교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청소년교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듯이 양국의 청소년교류가 정부 차원의 제도로 안정되게 정착되며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교류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전통무예)를 통한 청소년교류에 역점을 둔 대일 공공외교를 통해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한 적대적 감정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깊이가 깊어지며 폭이 넓어지므로 신뢰와 우정을 쌓아 미래 세대의 한일관계는 상호호혜적이며 발전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 주제어: 공공외교, 스포츠 공공외교, 대일(對日) 청소년교류, 한국의 전통 무예

< 목 차 >

국문초록

제1장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5
3. 연구 절차	7
4. 연구의 한계	8
제2장 이론적 배경	10
1. 공공외교의 정의와 현황	10
2. 스포츠 공공외교의 이론적 논의	15
3. 국제 청소년교류를 통한 갈등 개선 사례	20
제3장 대일 공공외교의 청소년교류 현황과 태권도 외교실태	25
1. 한일청소년 교류 현황	25
2. 대일 태권도 공공외교 실태	28
3. 스포츠 공공외교 자산으로서 태권도와 대일 공공외교 시 한계성	29
제4장 대일 공공외교의 자산: 택견과 해동검도	39
1. 택견	39
2. 해동검도	49
3. 대일 청소년교류 스포츠 공공외교	59
제5장 요약 및 결론	64
참고문헌	68
ABSTRACT	76

<그림 목차>

그림 1	3
그림 2	3
그림 3	7
그림 4	16
그림 5	16
그림 6	31
그림 7	42
그림 8	43

<표 목차>

표 1	9
표 2	16
표 3	20
표 4	26
표 5	27
표 6	34
표 7	35
표 8	37
표 9	40
표 10	44
표 11	46
표 12	47
표 13	50
표 14	55
표 15	56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¹⁾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영향 아래에서 일본은 우리의 간접적인 동맹국이자 우방국으로서 협력하여왔으며,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이 수입 자유화 체제로 전환되며 본격화되었던 경제 교류는 「일본-소재/한국-완제품」으로의 분업화 체제가 견고해지는 지금의 산업 시스템까지도 갖추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한일공동선언²⁾으로 민간 교류도 활성화되었고, 물리적인 거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여행지로써 서로의 나라를 오고 가며, 상대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다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생각보다 적대적이라는 것이 지배적일 것이다. 한일합방조약의 정당성 여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합의되지 못한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 ‘영토 영유권’ 등에 관한 양국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 쌓아온 양국의 안보적,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민간차원에서 실시한 국민 간 자발적인 사회, 문화적 교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이 보이게 만드는 일들이 최근에 일어난 것이다.

2018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하였고, 이후 청와대의 지소미아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 또는 한일 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본어: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基本關係に關する條約 (にほんこくとだいかんみんこくとのかいだのきほんかんけい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이다.

2) 한일공동선언(일본어: 日韓共同宣言)은 1998년 10월 8일, 대한민국과 일본이 한일간 협력 및 친근한 관계임을 다시금 확인한 선언을 말한다.

(GSOMIA)³⁾ 과거 결정사태까지 이어지며 양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양국 정치권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 등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와 이에 덧붙여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더해지면서, 국민감정 역시 급격히 나빠졌다. 이 같은 감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국민의 혐한 시위 등에서 드러난 바 있다.

양국의 경제적·안보적 상호의존도가 높은 만큼이나 한일관계 악화가 양국 상호 간에 끼친 부정적 영향은 컸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일본산 의류, 맥주, 자동차 등을 구매하지 않게 되어, 일본기업의 한국 내 매출이 급감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관광객의 일본 여행의 경우 2019년 8월 전년 동월(2018년 8월) 대비 48%나 줄어⁴⁾,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에 지원금을 지원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게다가 2019년 대한민국 정부의 지소미아 과거 결정은 한미일 안보 연대에 있어 심각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야기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군사, 안보까지 위협받게 하는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양국 정상외의 정치적 결단 등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극우의 상징이었던 아베가 물러나고 스가가 총리직을 승계받을 때 일부에서는 한일관계의 호전을 기대하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었다. 이미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회복이 어려우리만치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일본 내각에서도 유권자인 국민의 이런 여론을 거스를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16개 국가 8,000여 명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⁵⁾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나라는 일

3)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협정'이다. 별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일본어: 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 일한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줄여서 '한일 지소미아(韓日 GSOMIA)'라고 한다.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그 자체로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는 한일지소미아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타국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는 33번째였다.

4) 김청중, "8월 訪日 한국인 2018년比 48% ↓", 세계일보, 2019.09.19

5) 해외홍보문화원 2020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https://www.kocis.go.kr/ebook/ecatalog5.jsp?Dir=366>)

본(부정 39%)이었고, 그 주된 이유로는 주로 ‘한국의 정치 상황’, ‘국제적 위상’, ‘한국인의 국민성’이 꼽혔다고 한다.

<그림1.>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평가 3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그림2.>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가이미지 평가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2019>

따라서 훗날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외교활동으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있다.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 시키고, 나아가 우리 국가 이미지를 높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활동을 일컫는다.⁶⁾

전통적인 외교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의 교환, 공식 대표 사이의 메시지의 전달 및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것 등 국가의 대외관계를 행하는 공식적인 실천이나 방법을 의미하였다. (박경서, 2001) 또한, 외교(diplomacy)라는 용어는 외교정책(foreign policy)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negotiation)을 의미하기도 한다. (강석찬, 2008) 그러나 현대사회는 정부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에서 일반 대중 중심의 공공외교 혹은 민간외교로 외교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Melissen Jan, 2008) 우리가 공공외교라고 부르는 외교의 한 형태는 1990년대 이후로 탈냉전과 민주화, 인터넷의 확산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범세계적인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는 배경 가운데, 미국이 2001년 9·11 테러를 겪고 전 세계의 반미주의(Anti-Americanism)에 대해 고심하게 되면서 수면에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안세영, 2011)

냉전이 종식되고, 각국에 민주주의가 확산되며, 인터넷의 발달로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세계 각국의 뉴스에 보도되며, 미국의 경제위기가 미국만의 경제위기가 아닌 전 세계의 경제위기로 번지는 등 국제사회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로의 변화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관계나 개념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였다. 이에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하버드 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였고 미국 국방부 차관도 역임하여 이론과 현실을 겸비한 석학이라고 평가받는 조세프 S. 나이(Joseph S. Nye Jr. 1937~현재)에 의해 주장된 「소프트파워(soft power)」 이론이다. 소프트파워란 힘(力;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 다른 나라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드 파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설득과 매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주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부드러운 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외교에 반영하여 월드컵을 개최하였던 2002년에 국가이미지위원회 설립, 2009년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립, 2010년에는 공공외교 원년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공공외교는 정부외교만큼이나 즉각적이고 가시적

6) 외교부 홈페이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속도 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감정적인 싸움으로까지 변진 한일 양국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공공외교로 양국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선행되는 일이 차후 정치적, 외교적인 결실을 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공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양국의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이 주축을 이루는 인적 교류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이자 전통 무예인 택견과 해동검도를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일본의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와 민족적 정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스포츠·문화교류를 통해 양국의 관계가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대일 공공외교 중 한국의 전통무예 수련을 통한 양국의 청소년교류에 대해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다.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범위·방법·절차·한계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하여 본 연구의 이해를 도왔다. 제2장은 공공외교에 관한 기존 연구 및 스포츠의 공공외교로서 가능성을 살펴보고, 청소년교류의 성공적인 선례로 꼽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청소년교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3장은 대일 공공외교의 청소년교류 현황과 대일 태권도 공공외교의 실태 및 대일 공공외교 시 태권도가 가지는 한계성에 대해 연구하므로, 제4장에서 제시하는 대일 스포츠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우리의 전통무예에 대해 역설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대일 스포츠 공공외교의 소재이자 한일 청소년교류 시 일본의 청소년을 상대로 소개하고자 하는 우리의 전통무예 택견과 해동검도에 대한 배경지식 및 일본의 청소년들이 택견과 해동검도를 알게 되고 수련하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일관계의 진전이 없었던 상황 중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한일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양국의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꾀하였으나 취지에 비해 방법 또는 콘텐츠의 부족함을 느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제시되는 한국의 전통무예를 활용한 청소년 스포츠 국제교류와 그것의 소재로 언급되는 택견과 해동검도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이다. 문헌은 단행본, 선행논문, 신문,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선행논문을 통해 택견과 해동검도에 관한 개요, 전통무예의 정통성, 특징 등에 대해 집중 연구하였고, 한국의 전통 무예가 곧 한국의 문화의 일부분이기에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전통무예를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은 일본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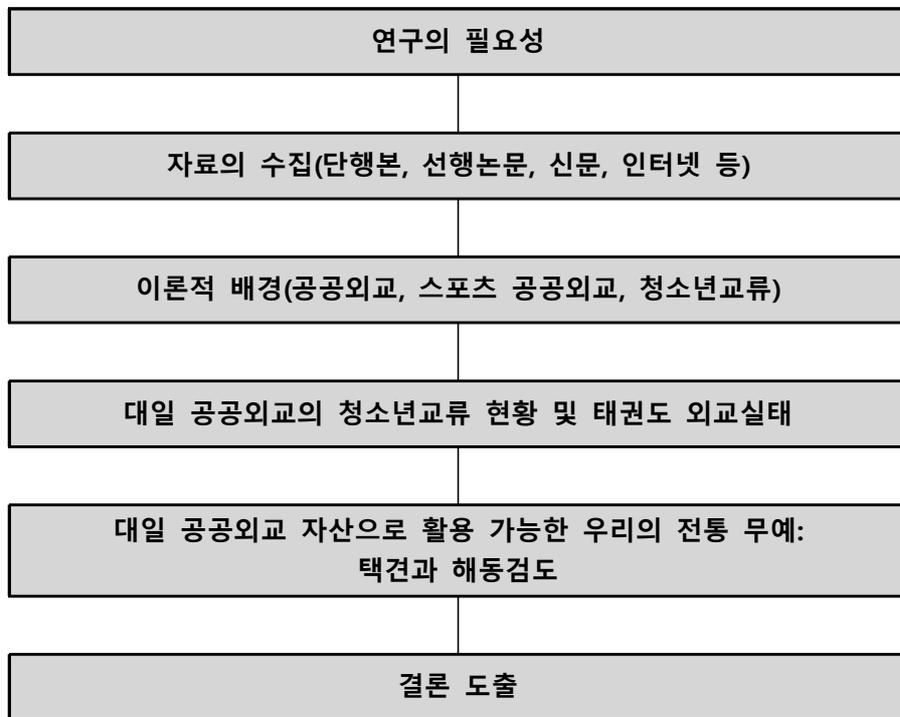
경남 거창에 거주하고 있는 택견인 박성호와 전북 군산에서 해동검도 체육관을 운영하며 해동검도의 창시과정 및 운동체계를 증언한 박○○ 관장⁸⁾을 직접 만나 우리의 전통무예의 전수 및 수련과정과 무예에 담겨 있는 한국의 정신 등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다.

7) 본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의 정상이 청소년교류라는 방법을 이용한 것에 대해 연구한 황선희의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가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2006)”과 청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에 대해 연구한 임지연, 장덕선, 김나라의 “청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2014)”에서 참조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도 한일관계의 갈등을 풀기 위해 한일 양국의 스포츠(한국의 전통무예)를 통한 청소년교류를 연구하였다.

8) 박○○ 관장(남, 1972년생)은 전북 군산 모 해동검도 체육관에서 해동검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성명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익명처리 하였고, 약 20년간 해동검도를 본인이 직접 운동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구두로 설명한 것이다. <인터뷰일자: 2021.8.15>

3. 연구의 절차

한일 양국의 청소년교류는 1998년 한일공동선언의 한일양국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한·일 중고생교류, 한·일 상대국어 선택 고교생 교류 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문화의 일부인 한국의 전통무예를 활용한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공공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며,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연구의 절차

먼저,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는 대일 청소년교류 스포츠 공공외교에 중점을 두고 그 소재로 택견과 해동검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스포츠 공공외교의 이론적 배경, 대일 청소년교류 현황, 택견과 해동검도 및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무예를 수련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주로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공공외교, 스포츠 공공외교, 국제 청소년 교류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고, 대일 공공외교의 청소년교류 현황 및 현재 대일 공공외교로 진행되고 있는 태권도 외교의 실태를 파악한 뒤 대일 공공외교에서 태권도가 가질 수 있는 한계성과 함께 대일 청소년교류 스포츠 공공외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재로 우리의 전통 무예인 택견과 해동검도를 제시하며 대일 공공외교 청소년교류의 실질적인 방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학술교류에 덧붙여 전통무예 체험 강의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정리한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4. 연구의 한계

첫째, 본 연구에서 전통무예라 함은 2008년에 제정하여 시행 중인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전통무예의 정의는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말한다.⁹⁾

둘째, 택견의 고찰에서 동이택견의 경우 기존의 연구 사례가 1건¹⁰⁾ 밖에 없고, 연구 내용이 미비하나 고조선으로부터 전수되고 있으며, 본인은 111대 택견 전수자임을 밝히고 있는 동이무예 택견 협회 회장 박성호의 단행본 ‘고구려의 혼(2021)’ 과 개인적인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셋째, 대일 공공외교 시 한국의 전통무예를 청소년교류에 활용하는 취지의 기존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 및 대일 태권도 공공외교 실태와 같은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된 논문을 참고하였으나, 한국의 전통무예를 대일 공공외교 청소년교류에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음 연구하는 것이므로 연구에 한계가 있다.

9) <표1.>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항

10) 박성호(1998). “동이무예 택견”.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 : 32-37.

<표1.>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2008. 3. 28 법률 제 900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라 함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 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 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 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의 국제적인 교류, 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9006호,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공외교의 정의와 현황

1) 공공외교의 정의

공공외교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16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프로파간다(propaganda)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1622년 당시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개신교(protestant)의 확산을 저지하고, 그들의 선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의 이름은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 인데, 그 이름에서 프로파간다(propaganda)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 초까지는 신앙의 전파 혹은 선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당시에는 프로파간다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는데, 그 후 양차 세계대전,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정권의 괴벨스가 이끌던 선전부(Reichsministerium für Volksaufklärung und Propaganda)의 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의미가 강화되었다. 프로파간다의 부정적인 어감에도 불구하고, 공공외교가 선전 활동과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김병호 등, 2020)

그런데 공공외교라는 용어가 현재와 같은 의미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5년 케네디 행정부에서 미국 해외공보처장을 역임했던 머로우의 이름을 딴 공공외교 센터(Edward R. Murrow Center for Public Diplomacy)를 설립하면서부터이다.¹¹⁾

안세영(2011)은 공공외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첫째, 문자적으로 그 뜻을 해석해 보는 관점에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에 접근해 보자면, ‘공공(公共, public)’ 과 ‘외교(外交, diplomacy)’ 의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각 단어의 뜻을 먼저 살

11)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것은 정보(information)라는 진부한 표현이나 선전(propaganda)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난 개념을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http://www.uscpubliediplomacy.org/blog/public-diplomacy-gullion-evolution-phrase>)

펴보면, 한국어에서 ‘공공(公共)’은 사회 일반 또는 대중(公衆)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한다.¹²⁾ 영어에서 ‘public’은 명사적 의미로는 일차적으로 대중 또는 공공적인 것 등을 일컫는다.¹³⁾ 이를 종합하여 생각하면 공공외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은 대중 또는 국민 등을 말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외교의 개념에서 공공은 공공외교의 대상과 주체를 나타낸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공공외교에서 그 대상은 정부가 아닌 타국 국민 즉 대중임을 일차적으로 나타내며,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민, 비정부기구 및 단체 그리고 정부 등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교’라는 용어가 협의로는 정부가 관리들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정부와 소통하는 과정을 말하고, 광의로는 국제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 국가의 외교정책의 방법이나 기술(skill)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건대 공공외교(公共外交)란, 그 대상이 타국의 대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외교를 행하는 주체는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 그리고 국민 개개인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또는 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들을 비정부기구 또는 단체 혹은 개인이 국위 선양을 위해 또는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펼치는 모든 모양의 외교활동을 공공외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⁴⁾

2) 공공외교의 현황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찍이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공외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미국의 공공외교이다. 미국의 역사에서 공공외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하여졌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세계의 공공외교의 역사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과 소련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념과 체제 경쟁을 펼쳤던 동서 냉전 시대에 동유럽 공산 진영을 상대로 「미국의 소리(Voice of

12) 두산 동아 편집부(2003). 「새국어사전」 제4판, 서울: 두산동아.

13) YBM시사 편집부(2002). 「엘리트 영한사전」 서울: 시사영어사.

14) 외교부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공공외교의 정의는 “외국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 시키고, 나아가 우리 국가 이미지를 높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활동”이다. <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America)」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재즈(Jazz)와 로큰롤(Rock'n'Roll) 음악을 활용하여 동서냉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이다. 미국은 이 방송을 통해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평화, 번영, 공평한 기회 등과 같은 미국이 추구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그 방송을 듣고 있는 대상들에게 불어 넣었으며,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그 방송을 듣는 청취자로 하여금 미국을 꿈꾸고 그리워하며 ‘이상향(Dreamland)’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 프로그램 중 하나인 ‘Music USA’는 재즈 작곡가 윌리스 코노버(Willis Conover, 1920~1996)가 진행하였는데, 그 영향력이 공산사회에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스며들어, 반세기가 지난 2005년 러시아 청취자가 당시 “매일 밤 방문과 창문을 닫고 윌리스 코노버의 프로그램에 주파수를 맞추어 두 시간 동안 자유를 맛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Melissen Jan, 2008)

흑인 재즈 트럼펫 연주자 디지 길레스피(Dizzy Gillespie, 1917~1993)¹⁵⁾는 순회공연을 하기에 앞서 국무부 공무원이 주의사항을 설명하자 “우리 흑인들은 지난 300년 동안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미국을 대표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인종차별정책을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는 공연을 앞두고 현지 주최 측에게 상류층, 특혜층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 시민도 초청할 것을 요구하여 ‘연주회의 민주화’를 몸소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행동 자체가 상대방 국민에게 “미국은 상류층과 서민들이 격의 없이 한 자리에서 어울려 놀 수 있다.”는 식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를 통해 재즈와 로큰롤 음악이 동구권에 흘러 들어갔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재즈와 로큰롤 음악이었다고 하니, 미국의 소리 라디오 방송은 총과 칼 등의 무력이 아닌 문화와 예술 및 대중과 쉽고 빠르게 접촉할 수 있는 미디어를

15) John Birks Gillespie(1917~1993): 미국의 재즈트럼펫 연주자이자 지휘자로 모던재즈의 기반이 된 비밥의 유형을 세워 파커와 함께 모던재즈의 시조로 불리고 있다.

이용하여 미국이 원하는 바를 성취한 미국의 공공외교가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은 중국의 공공외교이다. 중국 역시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담론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하며, 소프트 파워의 개발과 적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오랜 역사, 최근 경제적 성공, 문화적 자산, 방대한 인적 자원 등으로 인해 공공외교에서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공공외교 중 대표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자학원 개설이다. (김병호 등, 2020)

세계 역사의 흐름이 탈제국-다중심 및 네트워크 제국을 지향하고 있는 바, 세계의 질서는 지식과 문화의 소프트파워의 네트워크 제국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고성빈, 2017) 중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긍정하며 2002년 중국어의 해외보급방침을 결정하고, 2년 뒤인 2004년에 베이징(北京)에 공자학원 본부를 설립하여 공자학원을 중국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며, 중국문화의 보급과 현지 중국어 교육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베이징에 전 세계 공자학원 총괄본부를 세우고, 국제적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문화와 언어를 결합하여 중국을 알리고 타국 국민을 상대로 중국의 이미지 개선에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공공외교의 예라 할 수 있다. (유호근, 2013)

현재 공자학원은 하부 조직과 공자 학당을 포함하면 세계 138개국에 1,500개 이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 세계에 공자학원만 1,000개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중국 최초로 2004년에 한국의 서울에 공자학원을 공자아카데미란 명칭으로 설립하고, 현재 17개 대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학에는 100개 이상의 공자학원을 개설했다고 한다.¹⁶⁾

다음으로 일본의 공공외교이다. 일본 역시도 공공외교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의 공공외교는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일본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경제 마찰을 빚으며 대일 여론 악화를 경험하였다.

16) 김규환, “선전은 그만, 방빠... 서방서 설자리 잃어가는 中 공자학원”, 서울신문, 2018.12.20.

대일 여론의 악화는 일본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정책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보활동과 국제문화교류정책이라는 단기 및 장기의 공공외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즉 1970년대부터 일본은 자국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공공외교를 실시하였으며, 그 형태는 2000년대까지는 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보활동과 국제문화교류라는 형태로 분화되어 이루어져 왔다. (안세영, 2011)

2000년대 냉전의 종식과 정보화의 발달,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의 증대 등 국제관계에서 질서와 가치의 변화와 함께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 일본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인정하고 공공외교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동안 진행해오던 대외공보활동과 국제교류활동을 통합하여 ‘공보문화교류부(Public Diplomacy Department)’ 라는 부서로 탄생시켰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분화되어 진행되어 오던 대외공보와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공공외교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공공외교의 공식적인 범위는 대외공보와 국제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된 행위자는 외무성과 국제교류기금이다. 외무성은 내부 조직인 공보문화교류부를 통해서 공공외교에 관련된 비전과 계획을 설정하고, 다양한 행위자와 정부와의 연계와 지원을 도모한다. 또한, 외무보도관 조직을 통해서 자국의 공공외교와 관련된 소식과 정책 등을 알리는 공보활동을 담당하며, 재외공관과 국제교류기금을 통해서는 공공외교 관련 프로그램 등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세영, 2011)

마지막으로 독일의 공공외교이다. 독일에는 공공외교라는 단어가 있으나 독일이 오래전부터 문화와 교육에 중점을 둔 문화외교를 해온 데다 공공외교가 나치 독일이 했던 프로파간다(propaganda)와 같이 자칫 정치선전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리고 대신 ‘대외문화와 교육정책(die Auswärtige Kultur-und Bildungspolitik)’ 이라는 표현을 대외적,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김병호 등, 2020)

독일 공공외교의 대명사는 「괴테 인수티투트(Goethe-Institut)」이다. 괴테 인수티투트는 독일의 대외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써, 독일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독일어 교사를 독일에서 재교육시킬 목적으로 1951년 설립한 기관이다.¹⁷⁾ 괴테 인스티투트는 외무부의 제의로 1959~1960

년에 걸쳐 외국에서 활동하는 독일의 문화기관들을 흡수하였고, 현재는 괴테 인스티튜트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괴테 인스티튜트는 독일 내 12개를 포함하여 전 세계 98개국에 157개가 있으며(2020년 기준), 이들은 전 세계 1,100여 개의 대학교 및 문화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활동을 넓히고 있다. 괴테 인스티튜트가 추구하는 목표는 한마디로 “독일의 친구를 만드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독일어 보급이다. 둘째, 국제문화 교류와 협력이다. 셋째, 독일에 관한 최신의 정보 제공이다. (김병호 등, 202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들의 공공외교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그들의 언어의 보급을 힘쓰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체계와 문화를 결정짓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¹⁷⁾ 둘째, 문화와 예술을 통해 상대 국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성이 있다. 선진국은 자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 국가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었다.

2. 스포츠 공공외교의 이론적 논의

올림픽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주관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지구촌 축제이자 국제스포츠 행사이다. 올림픽의 시작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1863~1937)에 의해 1894년에 이루어졌다. 그는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Olympic Games is not winning but taking part; the essential thing in life is not conquering but fighting well." 라는 글귀를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생각했던 올림픽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7) 독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1925년 뮌헨에 설립했던 독일 아카데미(DA: Deutsche Akademie)의 후신이다.

18) 김익상. “한·미간의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1998)” p.4.

1896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첫 경기가 열린 이후로 2020년 도쿄 올림픽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 도쿄올림픽은 2021년에 개최됨)까지 총 32회에 걸쳐 올림픽 경기가 열렸다. 이 스포츠 행사를 통해 동서양의 나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나라 선수들은 출신 나라의 대표로 뛰며 자웅을 겨루고, 승부가 끝난 후에는 인류애로 하나가 되어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갈등 관계를 치유하며 하나 되는 힘을 제공해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림4.> 제1회 아테네올림픽 마라톤 참가선수 <그림5.> 제22회 모스크바올림픽 개막식
인터넷 출처: www.bibimbang.com 2021.11.16. 검색

여소영(2006)은 그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었는데, ‘올림픽,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볼 때’가 가장 높게 나왔다.(43.2%) 즉,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국제스포츠는 세계화와 직결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스포츠와 공공외교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관련 연구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2.> 세계화 느낌이 드는 때

배경변인	국제적인 행사개최	범세계적 운동동참	외국인, 외국상품	기업의 해외진출	해외관광 유학증가	국산품 세계인정	전체	X ²
성별	남	127(45.5)	13(4.7)	33(11.8)	48(17.2)	8(2.9)	50(17.9)	9.388
	녀	116(41.0)	17(6.0)	19(6.7)	49(17.3)	15(5.3)	67(23.7)	
지역	도시	114(42.1)	13(4.8)	32(11.8)	41(15.1)	8(3.0)	63(23.2)	8.670
	농촌	129(44.3)	17(5.8)	20(6.9)	56(19.2)	15(5.2)	54(18.6)	
성적	상	37(39.4)	6(6.4)	18(19.1)	14(14.9)	2(2.1)	17(18.1)	20.437*
	중	140(40.9)	17(5.0)	25(7.3)	65(19.0)	17(5.0)	78(22.8)	
	하	66(52.4)	7(5.6)	9(7.1)	18(14.3)	4(3.2)	22(17.5)	
집안경제	상	19(38.8)	1(2.0)	15(30.6)	6(12.2)	2(4.1)	6(12.2)	34.417**
	중	183(43.2)	25(5.9)	33(7.8)	78(18.4)	15(3.5)	91(21.2)	
	하	41(46.1)	4(4.5)	4(4.5)	13(14.6)	6(6.7)	21(23.6)	
전체	243(43.2)	30(5.3)	52(9.3)	97(17.3)	23(4.1)	117(20.8)	562(100)	

()는 %임

* P<.05 **P<.01

출처: 여소영. “고등학생들의 세계화 의식 실태 분석.(2006)” p.26.

1) 스포츠 공공외교란?

많은 스포츠 관련 전문가들은 스포츠의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스포츠의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sports’ 라는 단어의 어원을 먼저 찾아 그 뜻을 추적해 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스포츠의 어원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이어서 프랑스어로 사용되었는데, 처음에는 disport라 했으나, 이 단어가 영어 문화권으로 편입되면서 접두어 di를 떼어내고 sport가 되었다고 한다. 라틴어에서 dis라는 것은 ‘나누다(分離, away)’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어이고, port는 ‘나르다(carry)’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disport는 carry away라는 뜻이 된다. 이것은 ‘자기의 본래의 일에서 다른 곳으로 나르는 것’, 다시 말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태신, 2000)

그렇다면 스포츠 공공외교란 무엇인가? Maryam Asghar(2019)는 스포츠 상황을 통해 정치인 또는 외교관이 접촉하고 이러한 만남의 기회가 외교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스포츠 공공외교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⁹⁾ 또한, 스포츠 공공외교란 갈등을 분산시키고 친구를 만드는 명백하게 안전하고 온화한 수단이다. (David Rowe, 2011) 따라서 스포츠 공공외교란 스포츠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국가 간 또는 국민 간 친밀감을 형성시키는 외교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국의 전통무예를 소개하고 맞춤형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는 스포츠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사회학자들은 두 개의 일반이론(기능주의이론과 갈등이론) 중 하나를 이용하여 사회 속에서의 스포츠를 분석했다.²⁰⁾ 먼저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스포츠는 지배-피지배 관계를 은폐 및 고착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사용되는 국가기구의 하나이다. 반면에 기능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스포츠는 스포츠를 활용하여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전파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두 이론의 공통된 착안점은 스포츠가 산업사회와

19) Maryam Asghar. “Impact of Sports Diplomacy on Peace-Building.(2019)” p.21.

20) Coakley, Jay 저. 안민석·정홍익·임현진 편저. “사회이론은 스포츠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새로운 스포츠사회학』.(2002)” pp.42-72.

국가의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기용, 2009)

산업사회와 국가의 요구에 맞게 구성된 스포츠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적 활용수단과 국외적 활용수단으로 나뉘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국내적 활용수단으로는 1980년대 당시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내부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프로야구를 창설한 것처럼, 정치적 상징조작의 수단을 제공하여 다양한 정치적 목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외적 활용수단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남북단일팀」을 이룬 것처럼 다양한 외교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치적 형식의 정치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포츠가 정치적 도구와 더불어 외교적 도구로도 사용되어왔는데, 스포츠는 겉보기에 정치적이지 않고 대중문화의 부분집합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대상 국가를 정치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편리한 외교 수단이 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스포츠는 겉으로는 스포츠맨십(Sportsmanship)과 페어플레이(fair play) 등과 같은 가치 추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국기, 시상식 등과 같이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 즉, 국가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스포츠의 외교적 도구로써 사용을 촉진 시키는데, 스포츠외교는 외교의 수행에 스포츠를 이용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선택과 그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용, 2009)²¹⁾

결과적으로 스포츠를 통한 외교활동 및 스포츠 공공외교는 우리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공공외교는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널리 장려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공공외교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의 근거로는 기능주의 이론의 관점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Mitrany(1948)는 국가 간 분쟁 및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유지에 관한 방법으로 기능주의 통합이론을 제시한다.

21)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중국 간 펼쳐진 핑퐁(Ping-pong) 외교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스포츠 팀의 교환을 실시하였는데, 미국은 중국에 탁구팀을 그로부터 1년 후 중국은 미국에 농구팀을 보냈다. 종목의 선택이 실로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탁구에서 강자가 아니었고, 중국은 농구에서 강자가 아니었다. 미국 탁구팀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 반대로 중국 농구팀이 미국과의 경기에서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진다는 것이 국가위신의 실추로 이어질 이유가 없었고, 양국은 실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Kropke, 1974>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사이에서 비정치적 요인들의 교류 및 협력이 선행됨에 따라 두 체제 간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적 독립단위체 간 스포츠 교류 및 협력의 장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표면화될 때 기능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통합의 가능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스포츠를 통한 공공외교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²²⁾

2) 스포츠 공공외교 사례연구

스포츠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포츠 공공외교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 Goal)²³⁾를 채택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스포츠를 활용한 공공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실시함으로써 스포츠 공공외교를 실천하고 있다. (Bo Ra Nam, 2012)

호주의 ODA 프로그램은 주로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영국은 정부보다는 개인 또는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캐나다는 두 국가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세 국가는 각 국가의 생활체육이 선진화된 시스템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 국가로서 스포츠를 사회 통합의 기능을 목적으로 평소에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요인이 스포츠를 활용하여 ODA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⁴⁾

스포츠 공공외교의 또 다른 사례로는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해결을 위해 크리켓을 활용한 경우가 있다. 파키스탄-인도 관계는 1947년 독립 이후 카슈미르 분쟁을 포함한 여타 쟁점들이 원인이 되어 분열 및 갈등 관계가 되어 왔는데, 양국은 교착 상태에 빠진 양자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크리켓 스포츠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악화되어 양국 간 소통이 단

22) 임지연, 장덕선, 김나라. “청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2014)” p.57.

23) 2000년 9월 UN에서 채택한 의제.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달성하기로 한 8개의 지구촌 공동체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출처: <https://www.un.org/millenniumgoals/bkgd.shtml>>

24) Bo Ra Nam. “Sport and Public Diplomacy in Advanced Countries: Cases of UK, Australia, and Canada.(2012)” pp.64-65.

절되었을 때 크리켓 경기는 대부분 정치적 분위기를 정상화하여 양국 간 대화를 촉진하게 하는 촉매제와 같은 수월한 조치였다. 크리켓이 양국 간 단절된 소통을 되살아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민들이 크리켓에 열광하기 때문이다.²⁵⁾

<표3>

2011년 영국, 호주 ODA 지원 내용

국가	ODA 지원내용
영국	영국 문화미디어 체육부의 국제스포츠 개발 전략발표 중(2006년 4월) UN Sports 주관 - 영국 정부는 스포츠 ODA 사업을 위해 연간 17백만 파운드을 지원 - 체육 교사 및 전문 행정가 초청 교육 프로그램(스포츠를 통한 리더십 국제개발 IDEALS) - 재외 영국문화원을 통한 주재국 청소년 스포츠 교육프로그램(Dreams and Teams) - 개도국의 엘리트 스포츠 및 학교 체육 발전 지원사업(International Inspiration)
호주	호주 정부와 호주체육스포츠위원회 주관(90년대 초부터) - 호주 정부는 스포츠 ODA 사업을 위해 연간 22백만 호주달러 지원 - 남태평양 개도국 대상 생활체육개발 프로그램(ASOP: 호주 스포츠 지원 프로그램) - 남부 아프리카 국가 대상으로 스포츠 리더십 프로그램(Active Community Club)

출처: Bo Ra Nam. "Sport and Public Diplomacy in Advanced Countries: Cases of UK, Australia, and Canada(2012)"에서 요약, 정리

3. 국제 청소년교류를 통한 갈등 개선 사례: 독일과 프랑스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동아시아의 대한민국과 일본처럼 양국 간 침략 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에서 기인한 상처와 적대적 감정의 골이 깊은 관계였는데²⁶⁾, 독일과 프랑스는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와 프랑스

25) Maryam Asghar. "Impact of Sports Diplomacy on Peace-Building.(2019)" pp.53-85.

26)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이 난 30년 전쟁으로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독일과 프랑스의 오랜 분쟁의 시발점이 된 알사스를 노획물로 얻었고, 1667년 또 한 번의 약탈 전쟁

의 드골 대통령이 1963년 1월 22일 파리의 엘리제 궁전에서 「독일-프랑스 우호 조약(The Franco-German Friendship Treaty)」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후로 양국의 적대적인 감정의 골은 거의 말끔히 청산되어 양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청소년교류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청소년교류의 정책적 입안은 양국 정상들의 공통된 역사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독일의 아데나워와 프랑스의 드골은 유럽의 통합을 위해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오랜 상처와 적대적 감정의 골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였고, 그들은 이를 위해 1958년 9월 프랑스 대통령 드골의 고향이자 독-프 분쟁의 상징지인 로렌스 지방의 콜롬베이-레-두-엘리제(Colombey-les-deux-Églises)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²⁷⁾

이후 두 정상은 1963년 1월 22일 파리의 엘리제 궁전에서 만나 독일-프랑스 우호조약(The Franco-German Friendship Treaty)을 체결하고, 이 조약의 체결로 인해 본격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청소년교류가 시작되었으며, 위 조약은 양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교류촉진 기구²⁸⁾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은 가치관과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²⁹⁾

(Raubkriege)을 통해 알사스의 수도 스트라스부르크를 병합했다. 1806년에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1769~1821)에 의해 신성로마제국이 멸망하면서 1,000여 년 동안 유럽 황제국이었던 독일제국이 몰락하였다. 그리고 알사스-로렌이 다시 독일로 병합되는 비스마르크와 루이 3세의 독-프 전쟁이 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과 프랑스는 적국으로서 상대에 충구를 겨누었고, 이 과정에서 알사스-로렌 지방은 전세에 따라 독일령과 프랑스령을 오가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독일인과 프랑스인의 뿌리 깊은 적대적 감정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27) 독일의 아데나워와 프랑스의 드골은 당시에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역시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의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협력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했다고 한다. 또한 드골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유럽정책을 수립했다. 첫째, 對 대서양 정책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프랑스 독립을 확보한다. 둘째, 對 소련 정책으로 프랑스의 유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소련과 데탕트를 추구한다. 셋째, 對 독일 정책으로 유럽에서 프랑스의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의 경제력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독일과 협력해야 하며, 독일을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서 떼어 놓아야 한다. 반면, 아데나워는 독일을 유럽의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 이웃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독일에 대한 유럽인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독일 내에서 국가사회주의의 재기나 독일의 유럽 헤게모니 재장악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했다. 아데나워는 이러한 유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출처: 황선혜,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가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2006)” p.70.>

28) 이 기구는 독립적인 정책결정기구이자 감독기구인 쿠라토리움(Kuratorium)을 구성하며, 독일-프랑스 공동 출자 자금을 통해 운영된다. 1963년 7월 5일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사무국 설립 조약(Abkommen über das deutsch-französische Jugendwerk)이 제정되었고, 독일 바드 혼네프(Bad Honnef)에 1963년 7월 29일에, 프랑스의 Quai Branly에 1963년 10월 9일에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 사무국(das Deutsche-Französische Jugendwerk)이 각각 설치되었다. 同 기구는 독일과 프랑스의 청소년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다.

29) 백혜선. “청소년자아정체감형성을위한교회교육의접근방법.(2014)” pp.22-24.

로서 상대에 대한 적대적 감정보다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가능한 주체이기에 양국의 정상도 이를 알고 양국의 미래 세대에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황선혜(2006)는 독일과 프랑스가 양국 간 상호 화해와 협력을 위해 선택한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것과 청소년들의 교류 프로그램에 집중한다.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1963년 7월 5일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사무국 설립 조약(Abkommen über das deutsch-französische Jugendwerk)이 제정된 이후 동년 10월 9일에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사무국(das Deutsch-Französische Jugendwerk)」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특히, 2003년은 1963년에 제정된 엘리제 조약의 4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의 국회의원 총 12명으로 구성된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사무국 평가위원회」가 설립되어 그동안의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뿌리 깊은 적대의식을 가졌던 양국 간 관계를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우정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³⁰⁾

1963년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사무국(DFJW) 설립 조약에 따르면 다양한 교류활동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 ①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업을 가진 청소년의 교류
- ② 직업과 기술 분야에서 교류
- ③ 단체여행과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 스포츠 행사
- ④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 간 휴가
- ⑤ 청소년교류 업무와 스포츠 활동, 청소년 운동선수를 위한 공동훈련을 위한 전문 인력과 협력자들의 교류와 육성
- ⑥ 공적 모임, 수학여행, 유학, 세미나, 음악 행사와 청소년 사업 지도자들의 회의 등을 통해 양국 간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폭 심화

30) 김택환, “철천지원수 프랑스-독일, 어떻게 최고 우방이 됐나”, Oh my news, 2019.12.29.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⑦ 상대방 언어능력 축진을 위한 학교 외 시설 설립

⑧ 청소년 문제에 대한 조사와 학문적 연구

한편, 1963년에 제정된 조약이 2005년에 개정되었는데, 위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과 활동 분야가 삭제되고, 어학과 다문화적 학습활동³¹⁾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위의 8개 조항을 아래의 4개 항목으로 개편시켰다.³²⁾ 개편된 내용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교류 및 접촉이다. 이 프로그램은 파트너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며, 독일과 프랑스의 청소년들이 현실과 실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독일-프랑스 협력 프로그램의 일차적 단계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호 방문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사는 장소를 방문하거나 제 3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모임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는 테마 프로그램이다. 양국의 단순한 현실에서 보다 심화된 분야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확대되어 이 분야에 대한 파트너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협력의 형태나 유럽통합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테마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장기 프로그램이다. 파트너국의 문화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고유 생활영역과 과제 분야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가능한 단기적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들이어야 하고, 유창한 언어 실력을 구사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심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 단계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사무국(DFJW)이 정하는 나이 제한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며, 이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의 실제와 양국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31) 언어와 문화를 활용한 공공외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32)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사무국 정강 제2조 제2항, DJFW, Richtlinien, 2004, pp. 9-11. Amtsblatt der Europäischen Union. RICHTLINIE 2004/83/EG DES RATES vom 29. April 2004(P.9 INHALT DES INTERNATIONALEN SCHUTZES)

한일관계는 임진왜란 등 침략전쟁과 식민지 역사의 경험으로 인해 순탄하지 못하고 항상 잡음을 내는 관계로, 가깝지만 먼 이웃 나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와 같은 적대적 감정과 갈등을 겪었지만, 화해와 협력으로 아픈 역사를 승화시킨 약진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청소년교류가 끼친 긍정적 영향³³⁾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독일과 프랑스 청소년교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인원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기간별로 단기와 장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탄력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간, 직업 간, 어학·스포츠·문화 등 다양한 분야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상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토대 위에 상대 국가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효율적, 지속적 성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선혜, 2014)

33) 2018.6.27.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제주포럼 문화교류 세션에서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유럽의 두 강대국 독일과 프랑스도 1963년 엘리제조약을 통해 지자체 교류 2,200건, 청소년교류 연 20여만 명 등 상당히 광범위한 교류가 빈번하게 실시 되었다.”며 “한·일 간에도 제도화된 인적·문화 교류가 필요하고 특히 백지상태에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청소년교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유미, 중앙일보, “독일·프랑스 청소년 연 20만명 교류 … 한국·일본도 인적·문화 교류 늘리자”, 2018.6.28.>

Ⅲ. 대일 공공외교의 청소년교류 현황과 태권도 외교실태

1. 한일 청소년교류 현황

신문 칼럼 및 국제 포럼 등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 즉각적인 화해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써 대일 공공외교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미비한 듯하다. 이는 대일 공공외교가 체계적인 정책으로써 행하여지지 못했던 현실과 또한 동시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물론 관련된 연구가 미비하였다고 하여 대일 공공외교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외교의 포괄적 개념을 생각해 볼 때 2002 한일월드컵공동개최 및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BOA의 일본 활동 등 한류 콘텐츠 등을 매개로 한 활동은 모두 일본 국민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공공외교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지에 재외공관, 세종학당, 교육원 등을 통해 일본 국민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외교활동 역시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이다. 그러나 공공외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품고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일본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이 아니었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채택한 「한일공동선언」 중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 증진이 약속된 적이 있는데, 이는 민간 분야의 교류가 본격화된 모멘텀이었다. 이 시기 이후로 대일 공공외교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한일공동선언으로 약속된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한일 양국 정부의 청소년 교류 확대, 대한민국 내 일본문화 개방, 한일공동이공계 학부 유학생 제도 등이 있었다. 먼저 이 3가지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교류 사업이다.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는 한일 중고생 교류,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상대국 언어 선택 고교생 교류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교육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써 위탁 시행하고 있다. 5~10일간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방문교류, 문화유적지 탐방, 홈스테이 등으로 이루어진다.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만 18~25세의 청년들에게 여행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 관광프로그램인 워킹홀리데이도 실시하고 있다.

<표4.> 한·일 교육교류 현황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대상	대학생(80명) 및 교원(80명)
	기간	10일간
	내용	학교방문교류, 문화유적지탐방, 홈스테이, 특강 등
	지원방법	소속대학, 소속 시도교육청 추천 및 직접선발
한·일 중고생교류	대상	중고생(100명)
	기간	7일간
	내용	홈스테이(고교생) 등
	지원방법	소속 시도교육청 추천
한·일 상대국어 선택 고교생교류	대상	제2외국어로 상대국어를 선택한 고2(60명)
	기간	5일간
	내용	학교방문교류, 문화유적지탐방 등
	지원방법	소속 시도교육청 추천

출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www.niied.go.kr/user/nd75863.do)

둘째,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이다.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약 6년(1998~2004) 동안 4차에 걸쳐 이어진 일본 대중문화 수입허용 정책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행한 우리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일본 종속화 비판과 자국의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된 외세 배격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는 일본 만화, 비디오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문화 수입에 대하여 폐쇄적이었으나, 한일공동선언 이후로 일본의 대중문화 일부를 즉시 개방하였고 계속해서 합의를 거쳐 조금씩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한일공동이공계 학부 유학생 관련 사업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한국의 공과대학 학부 일본 유학생에게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학 프로그램으로 한일 양국 간 친목 도모, 미래 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매년 4~6월경 각 지방별로 배정 인원을 1차 고사에서 선발하고, 7~8월경 일본 문부과학성이 물리, 화학, 수학, 영어 4과목 선발시험을 출제, 100명 내외를 선발, 9~10월경 3차 면접 통해 배정대학과 배치학과를 최종결정한다. 한국에서 6개월간 전기 예비교육, 일본에서 후기 예비교육을 받으며, 생활비는 한 달에 12만 엔을 지급 받는다. 20년간 지속되던 한일공동이공계 학부 유학은 2019년 기존 일반 파견 방식에서 상호교류 방식의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으로 개편되었다.

<표5.>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구분	석·박사 학위과정		학부 1년 과정		학부 단기 과정	
	한국→일본	일본→한국	한국→일본	일본→한국	한국→일본	일본→한국
분야	이공계	전 영역	일본어, 일본문화	전 영역	전 영역	전 영역
규모	연 15명	연 15명	연 25명	연 25명	연 160명	연 160명
기간	각 과정의 표준수업 연한기간	석사 3년, 박사 4년 (예비교육 과정 1년포함)	1년 (10월 ~ 다음해 9월)	1년	3개월 이내 (수학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운영기간)	2주 ~ 5주 (수학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운영기간)
자격	35세 미만	만 40세 미만	만 18세 ~ 30세 미만		만 18세 ~ 30세 미만	
	석사: 대학 졸업(예정)자 박사: 대학 졸업(예정)자		상대국 대학의 학부 정규과정 2학년 이상 재학생		상대국 대학의 학부 정규과정 재학생	
	(한국→일본) 한국 국적자, (일본→한국) 일본 국적자 ※ 복수 국적자 지원 불가					

출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www.niied.go.kr/user/nd34267.do)

2. 대일 태권도 공공외교 실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5트랙 차원의 대일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 재단은 1994년부터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린다는 목표하에 연구지원과 교육을 통해 한국학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말까지 12개국 72개 대학에 108개의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였으며, 28개국 41개 대학에 객원 교수를 파견하였다. 한국학 강의의 내용은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한국과 관련된 강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기태 등 2013)

위 프로그램 중 스포츠 외교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과 한국관광공사가 펼치고 있는 대일 태권도 문화의 전파 및 홍보 활동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상품의 하나로 선정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태권도 문화 콘텐츠 및 태권도와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왔다고 한다. 그 예로 동경 한국문화원은 요쓰야 청사 개원 1주년이 되는 2010년 6월 17일 동경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사카타 도이치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고다 다카후미 문화청 차장,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오치미치오 이사장, 동경 시티 발레단 아다치 에츠코 이사장 등 일본의 문화·예술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립무용단 “태권무무(跆拳道舞) 달하 The Moon” 공연을 개최하였다.³⁴⁾ 이는 무용과 태권 무술을 조화시킨 창작 무용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이며, 한국 스포츠의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한류 스포츠의 붐을 조성해 나가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그 외 일본 내에서 한국의 태권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엿볼 수 있는 연구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34) 외교부 공식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 「태권무무(跆拳道舞) 달하 The Moon」

3. 스포츠 공공외교자산으로서 태권도와 대일 공공외교 시 한계성

1) 스포츠 공공외교의 훌륭한 도구, 태권도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국내를 넘어 세계무대에 알려지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태권도 외교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충영은(2002) 태권도 외교란 한국 스포츠 외교이자 정치·문화적 수단 중 하나로써 태권도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함으로써 외교적 목표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의 총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⁵⁾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세계화 과정의 일환으로 1973년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국기원과 세계 태권도 연맹이 결성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태권도의 세계화가 진행되어 각 대륙의 선수권 대회의 개최와 국제 경기단체 가입, 유명대회에서 태권도의 승인과 채택으로 이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태권도 외교의 체계도 크게 민간차원과 정부 차원으로 줄기가 잡히게 된 것이다. 민간차원은 국기원, 세계 태권도 연맹, 대한 태권도 협회 및 기타 개인 태권도 조직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은 외교부가 주축이 되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박우호, 2006)

태권도는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이나 중국의 무술에 비하여 매우 늦게 국제사회에 진출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성공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국내의 사회적 여건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수한 지도자들과 이들이 현지에서 보여준 강인한 의지와 생존 차원에서 벌인 엄청난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³⁶⁾ (양진방, 2002)

199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당시

35) 이충영. “태권도 세계화가 한국 스포츠외교에 미친 영향.(2002)” pp.1-5.

36)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 입지는 보잘것 없었다. 이러한 시기에 태권도는 해외 각국에 진출하여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힘을 구축해나가고 있었다. 한국 외교에 있어서 태권도가 발휘한 현실적 역량은 우리 외교사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될 비중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진방. “전통 무도의 세계화 방안(2002)”>

마이크 에스피 美 농무장관이 한국 대표단 허신행 장관(당시 농림수산부)을 보더니 대뜸 “혹시 태권도를 할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인사말을 꺼냈고, 뜻하지 않은 질문에 허신행 장관이 머뭇거리자 에스피 장관은 다음과 같은 말을 이었다고 한다. “훌륭한 사범 밑에서 태권도를 배워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리를 추구하자.” 다행히 태권도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었던 마이크 에스피 농무장관을 만났기에 한국은 제네바 최종협상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태권도 공공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³⁷⁾

또한, 빌 클린턴 前 美 대통령의 ‘그랜드 마스터’ 이행웅(미국태권도협회(American Taekwondo Association) 회장)은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 독특한 ‘송암품새’를 창시하고, 태권도에 비즈니스를 접목시킨 특유의 도장 경영으로 ATA를 미국 무도 단일 조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단체로 성장시켰는데, 그는 30년 이상 태권도를 보급해 22만 명의 제자를 배출했고, 미국 내에만도 ‘송암태권도’를 가르치는 도장이 1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행웅 회장은 1986년 리틀록에서 열린 ATA 태권도대회에서 당시 아칸소 주지사 빌 클린턴이 개회 축사를 맡은 것이 인연이 되어 그 후로 태권도를 통한 사제 관계를 이어왔다. 또한, 이행웅 회장은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백악관에 수시로 초대받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태권도 사범의 공공외교관의 역할이 빛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빌 클린턴은 퇴임 이후 자신의 자서전 출판 기념차 한국을 방문하여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스승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보기 위해 용인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해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을 보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었다. (조선일보, 2000.10.6.)

지난 2021. 11. 20. 이동섭 국기원장은 트럼프 前 美 대통령의 별장인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마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트럼프 前 대통령에게 명예 9단 증과 태권도복을 전달하였다. 트럼프 前 대통령은 명예 단증을 받은 후 “대단히 영광이다. 태권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요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무도”라며 “내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 국회의사당에 태권도 도복

37) 박우호. “태권도가 민간외교에 미친 영향(2006).” p.29.

을 입고 가겠다.”고 화답하며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방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2021.11.21.)



<그림 6>

트럼프는 평소 태권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를 활용하여 미국의 상류층 인사를 상대로 이동섭 국기원장이 훌륭한 공공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태권도는 세계 각계각층을 상대로 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다.

- 사진 출처: 동아일보, 2021.11.21

이처럼 태권도는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도 스포츠이자 공공외교의 소재이다. 태권도가 세계 속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³⁸⁾ 첫째, 태권도 사범들의 개인적인 노력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배고프고 암울했던 시절(1950~1970년대) 태권도 사범들은 도복 한 벌 가지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도장을 세우고 태권도를 가르쳤다. 그 후 그들은 전 세계 각 지역에 연맹을 창설하여 사범들 간 결속을 강화하였고, 이는 태권도 세계화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연맹체는 아시아 태권도 연맹, 유럽 태권도 연맹, 아프리카 태권도 연맹, 팬암 태권도 연맹 등이 있다.

둘째, 국가대표 시범단의 활약이다. 특히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1년에 5회 이상 지구촌을 순회하며 공공외교 사절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연마된 기술의 묘기와 위력 또한 특수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태권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 흥미를 갖고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태권도 보급 발전을 더욱 왕성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무예

38) 박우호. “태권도가 민간외교에 미친 영향(2006).” pp.65-66.

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범에는 태권도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호신술, 격파 등 다양한 기술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정신적 기풍도 포함되어 있어 태권도의 종합적인 행위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정부 파견 사범 (KOICA)의 활동이 있었다. 태권도는 국제협력단 (KOICA)의 주요 사업의 하나라고 하는데, 대개 일회적이고 기간이 비교적 단기적인 기술 연수 초청 교육, 의료진 파견, 무상원조, 공연예술단 파견 등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 고유의 교육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효율적인 문화외교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국제협력단에서 파견한 태권도 사범은 현지 교민의 민원 해결을 주선하고, 현지의 고위층과 접촉을 수월하게 하여 태권도 사범을 통한 정치, 경제적 외교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태권도의 공공외교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단의 단원들은 비록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정부에서 정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일상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삶을 체험하며, 봉사로 그들을 가르치고, 헌신으로 주민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공외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의 파송 활동으로 공공외교관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 태권도인들의 활약이다. 박옥이(2003)는 태권도 선교³⁹⁾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⁴⁰⁾고 말씀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태권도라는 우리의 문화 자산을 가지고 선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지도자, 시범단 그리고 기지화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선교하는 모든 총체적 활동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태권도 선교사들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태권도 공공외교관으로서 세계 각처에서 주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 도구로는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를 사용하고 있다.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 파송이라는 특별한 차원에서의 해외 진출은 비록 태권도 전파가 본래 추구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태권도라는 우리의 국기(國技)를 이용하여 그들

39) 박옥이. “전문인 선교를 위한 태권도선교의 역사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003)” pp.34-40.

40)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외국인이 태권도를 수련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과 정신세계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한국이라는 국가를 더욱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박우호의 연구는 평가하고 있다.⁴¹⁾ 이것은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외교로써 순기능이며, 장점이다. 실제로 태권도는 단순히 싸움을 가르치거나 강해지기만을 추구하는 무술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상호 간 존중하는 예의범절의 정신자세를 수련 시에 강조하기에 그 교육적 가치는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대일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태권도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의 태권도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까?

2) 대일 공공외교 자산으로서 태권도의 한계: 일본 가라테와의 유사성

가라테(空手, Karate)는 중국 남권에서 유래하여 오키나와에 정착한 ‘오키나와 테(手)’라는 무술이 다시 1900년대에 들어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서 개량을 거쳐 만들어진 현대무술⁴²⁾이라고 하는데, 가라테의 형(型)과 태권도의 품세에는 비슷한 동작이 많이 있기에 가라테와 태권도의 유사성 또는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2001년 3월 6일 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홍보처가 한국정보가 있는 외국 사이트 654개를 검색한 결과, 이 중 56.4%인 369개에서 515건의 잘못된 정보를 찾아냈다고 하는데, 이 중 태권도 관련 부분이 있다. 당시 국정홍보처는 미국 몬타나 대학의 격투기 사이트(www.bstkd.com)에서 태권도의 기원이 일본의 가라테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홍보처는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보낸다고 하였는데, 국정홍보처의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태권도가 가라테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⁴³⁾, 심지어 태권도가 가라테에서 파생된 무술이라는 주장을 한다 해도 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는

41) 박우호. “태권도가 민간외교에 미친 영향.(2006)” p.65.

42) 최명수. “태권도, 가라테, 우슈의 기본자세 비교 분석(2008)” p.32.

43) 엄재영. “태권도 태극품새와 가라테 카타 평안의 가술체계 비교분석(2016)” p.18, 임새봄. “근대 태권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2009)” p.54.

박의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 가라테의 분과 중 근대 가라테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키나와 출신 후나코시 기친(船越義珍, 1868~1957)이 창설한 ‘쇼토칸 가라테’는 전통 가라테 유파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태권도의 태극 1장과 쇼토칸 가라테의 가타 중 태극형의 길과 동작은 99% 유사하다. 쇼토칸 가라테와 태권도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활동한 태권도 원로 이준구⁴⁴⁾ 사범의 증언이 있다. (아래 인터뷰 문답 여섯째 줄)

<표6.> 75세에 송판 깨는 美 태권도 황제 이준구

▶ 9개 관에서 가르치는 기술은 다 비슷했습니다.

“그럼요. 다 가라테를 기본으로 한 것인데.”

▶ 관마다 특징이 있지 않았나요.

“굳이 말하자면, 청도관이 옆차기로 유명했고, 무덕관은 앞차기를 잘했다는 정도죠.”

▶ 가라테 기술과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까.

“가라테를 가르친 거니까. 당수니 공수니 다 같은 거예요.”

▶ 초창기 태권도는 사실 일본의 가라테를 그대로 본뜬 것 아닙니까.

“청도관 초대 관장인 이원국 선생이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 배운 가라테를 귀국해서 보급 했으니, 맞는 말이에요. 역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 발차기에서 차이가 없었나요.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이 가라테보다 더 발전했지. 일본은 전통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도 옛날 것 거의 그대로 가르쳐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의식이 없어 뒤돌려차기니 뭐니 해서 제멋대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뒷날 다 복이 된 거요.”

44) 1932년 출생. 1946년 태권도를 처음 배웠다. 그가 입문한 청도관은 초창기 태권도 역사를 대표 하는 이른바 '태권도 9개 관' 중 하나로 당시엔 쇼토칸 가라테 기반의 도장이었다고 한다. 엄운규 前 국기원장도 이곳에서 함께 수련하였다고 한다. 2018년 사망.

▶ 당시엔 뒤돌려차기가 없었습니다.

“그랬지. 나도 그때 뒤돌려차기는 못 배웠어요. 기본 동작만 배웠지. 지금은 뛰어앞차기 등 기술이 얼마나 화려해요. 가라테보다 훨씬 앞서 있지. 상대가 안 되죠. 쿵푸도 그렇고. 그러니 올림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대중이 좋아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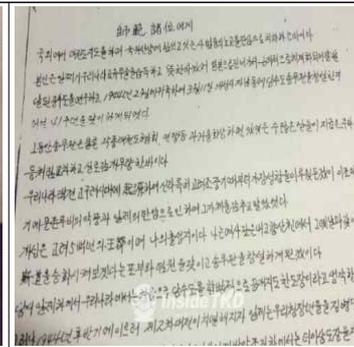
▶ 태권도에 대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시초는 가라테이지만, 이후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것’이라고.

“다른 도장은 몰라도 청도관만큼은 분명해요. 품세도 가라테의 평안이니 철기니 하는 것을 그대로 배웠으니. 태극형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출처: 동아일보 신동아 2006.8.14.)

안근아와 이재봉(2002)은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후나코시 기친으로부터 가라테를 전수받고 한국에 돌아와 당수도 체육관을 열은 이원국에 대해 태권도의 가라테 기원설과 전통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의 대상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이원국과 노병직의 태권도 기원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도 진행형이다.⁴⁵⁾ 다음은 이와 관련된 노병직의 친필 편지내용⁴⁶⁾이다.

<표7> 후나코시 기친, 이원국, 노병직 자필편지 등47)

		
<p>후나코시 기친(1868 ~ 1957)</p>	<p>이원국(1907~2003)</p>	<p>노병직의 자필편지</p>

출처: <https://blog.naver.com/danbi3818/221753701231>

45) 김영선. “현대 태권도의 원류, ‘오대관’의 형성과 사적(史的) 의의에 관한 연구(2018)” pp.13-14.

46) 박성진, “태권도 송무관 노병직 옹 30년전 친필편지”, 헤럴드 경제, 2015.1.5

47) 이원국의 인물사진과 노병직의 자필편지 사진이다. 해방 후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이원국은 청도관 관장이 되고, 노병직은 송무관 관장이 된다.

“사범 제위에게 (1985년 3월 제1편)”

국외에서 태권도 지도를 하며 국위 선양에 힘쓰고 있는 사범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이다. 본인은 일찌기 우리나라 고유 무술을 습득하고 뜻한 바 있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근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잘 발달된 공수도를 연구하고 1944년 2월에 귀국하여 3월 11일 개성시 자남동에 당수도 송무관을 창설한 지 어언 4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송무관은 물론 각종 태권도협회, 연맹 등 과거를 회상하면 있었던 수 많은 일들이 지금은 주마등처럼 교차하고 실로 감개무량한 바이다. 우리나라 택견(은) 고구려 시대에 기원하여 신라 특히 고려조 중기 때부터 가장 성황을 이루었던 것이 이조 말기에 문존무비의 악풍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그 자체를 감추고 말았었다. 개성은 고려 5백 년의 왕도이며 나의 출생지이다. 나는 역사 깊은 내 고향 산천에서 그 옛날과 같이 사도(斯道)를 승화시켜 보겠다는 포부와 염원을 가지고 송무관을 창설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일제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당수도를 합법적으로 공개 지도한 도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944년 후반기에 이르러 제2차대전이 치열해지자 일제는 우리 청장년들을 징병 또는 징용으로 징발하는 등 최후 발악을 하던 때였기에 그 당시의 제반 악조건 하에서는 더 이상 도장을 지속하기 곤란하여 8월 23일 일단 중지를 하였다. 이 무렵 일본에서 나와 같은 도장에서 연구하고 돌아온 이원국씨가 서울 서대문에서 당수도 청도관을 창설하였으나 그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중지하고 말았다.(참고로 덧붙임) 8.15해방 후 개성시 동흥동에서 본관을 재발족하여 본격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 태권도의 전통과 역시 깊은 기간(基幹) 도장임을 제군들은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원국씨가 청도관을 재발족하였고 또 조선연무관 유도장에서 권법부가 설치되자 일본에서 돌아온 전상섭씨가 사범을 담당하고 후에 지도관 개칭, 황기씨가 교통부우회에 당수부를 설치하고 후에 무덕관으로 개칭, YMCA권법부가 설치되므로 일본에서 돌아온 윤병인씨가 사범을 담당하고 후에 창무관으로 개칭. 이와 같이 해방 전에는 단 두 개 밖에 없던 도장이 해방이 된 다음해 1946년도부터 재발족 그리고 3개 도장이 새로 생겨 모두 5개 도장으로 그 수가 증가됐다.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하였다. 한편, 최흥희씨가 군에 오도관을 창설한 것이 후에 일반에게 알려졌다. 이상은 우리나라 초창기에 생긴 기간도장들이며 여기서 배출된 수 많은 훌륭한 태권도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 진출하여 열심히 태권도 보급을 한 것이 밑거름이 되고 뒷받침이 되어 세계연맹도 조직이 되고 세계만방에 태권도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한다. 특히 86아세안게임 선택과 88올림픽 종목 선택은 모든 사람들의 공이라고 하겠다. 본인은 이와 같이 태권도가 날이 갈수록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을 항상 기뻐하면서도 이면에는 오래전부터 제도상 불미한 점이 많음에 염려가 된다. 그러나 미비한 점들도 차차 잘되리라고 믿으며 이에 송무관 출신 사범들이나 현실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태권도

백년대계의 먼 앞날을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하여 주기 바라며 사범 제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바이다.

1985년 3월

송무관 세계태권도본부 총재 노병직

청도관 창립자 이원국과 송무관 창립자 노병직 등 1940년대 중후반 태권도를 전파하는데 앞장섰던 태권도 원로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가라테를 수련한 이들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⁴⁸⁾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위의 이준구 사범의 인터뷰 내용⁴⁹⁾대로 이미 태권도는 독자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가라테와는 다른 독립적인 무술의 형태를 갖춘 것은 분명하기에⁵⁰⁾ 역사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태권도 원로들의 땀과 눈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기 있는 종합격투기 UFC 선수였던 차엘 패트릭 소넨(Chael Patrick Sonnen, 美, 1977~현재)은 태권도를 가라테의 아류라고 비하하며 동시에 한국은 일본의 모조품과 같은 나라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다음은 차엘 패트릭 소넨의 자서전에 수록되어있는 내용인데, 인터넷상에 공개되어있는 태권도와 한국을 평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표8> 차엘 패트릭 소넨의 자서전 중 일부발췌

놀랍게도, 가라테가 이렇게 미천한 기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이걸 따라 한 자들이 있다. 바로 일본의 아류 미니미(Japan Jr.)로 알려진 한국인데, 그들도 역시 빙빙 돌면서 랜덤하게 킥을 날려주는 그런 무술을 갖고 싶어했다. 한국인들은 틈만 나면 일본 문화를 흠치고 베끼면서 사실은 그들이 종주국이고 더 잘 한다고 강하게 우기는 습성이 있다. 그들이 가라테를 들여올 때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가라테를 들여와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로 그걸 태권도라고 불렀다. '태권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아마 '저작권 위반 회피'일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극동지역에서는 법률체계가

48) 엄재영. “태권도 태극품새와 가라테 카타 평안의 가술체계 비교분석(2016)” p.18.

임새봄. “근대 태권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2009)” p.54.

49) <표6.> 75세에 송관 깨는 美 태권도 황제 이준구

50) 임새봄. “근대 태권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2009)” pp.64-66.

약해서(너무 약해서 사실 한국 재판의 94퍼센트가 동전 던지기로 결정될 정도다), 그들은 이런 뻔뻔한 표절행위를 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태권도의 기본 내용을 보면 가라테와 완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 공격 금지? 똑같다. 얇고 가랑이가 넉넉한 도복? 똑같다. 너무 강력해서 나비의 목을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정신없는 발차기들? 완전 똑같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가라테나 태권도를 배울까 고민한다면 그냥 자살하기를 추천한다.

- 출처: <http://gotmma.tistory.com/>, 검색일: 2021.8.20.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구인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알지 못하기에 한국이 일본을 모방하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한국을 36년간 식민지배했던 일본 사람들 역시 태권도는 가라테를 모방한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 청소년들을 상대로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공공외교를 펼친다는 것은 아무리 매력적인 태권도 퍼포먼스를 선보인다고 할지라도, ‘태권도는 가라테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로 태권도의 가치를 깎아내려 그동안의 땀과 노력을 허사로 만들 가능성도 크다.

태권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국위를 선양하는 등 괄목할만한 업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기원에 대한 일본 가라테 유입설과 그에 따른 한계성 때문에 대일 청소년교류 스포츠 공공외교의 소재로 우리의 역사적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을 통해 상고시대부터 전수되어 온 전통무예 택견과 무예도보통지를 근간으로 현대에 맞게 각색되어 전통 검무에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다고 평가받는 해동검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IV. 대일 공공외교의 자산: 택견과 해동검도

1. 택견

1) 택견의 역사

우리 민족 고유의 성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무예 택견. 이대중(2013)은 택견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는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하는 무예로, 고려 시대에는 무신들의 기본 무예이자 왕의 유희용으로, 조선 초기에는 무사 선발, 조선 중기에는 일반 백성들의 민속놀이로 성행하며 전승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택견의 명맥이 거의 단절되었다가 일제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아 택견을 전수해준 송덕기(1893~1987)를 비롯하여 그의 제자 신한승(1928~1987)이 체계를 잡아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⁵¹⁾ 또한, 박성호(1998)는 택견은 경기 이남 지방의 택견(더 정확히 말하면 한양 지방의 택견)과 경기 이북 지역 곧, 평안북도 신의주 지방의 택견으로 나뉘어 전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⁵²⁾

택견에 대한 역사적인 유래는 현재까지 문헌적으로 언제부터 실시해 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단재 신채호(申採護, 1880~1936)의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 태조왕(太祖王 : 재위 53~146)때, 신소도(臣蘇塗) 대제전 행사에서 수박(手搏), 격검(擊劍), 사예(射藝), 기마(騎馬), 덕견이(택견) 등 각종 무예를 겨루어 그 중 승리하는 자를 선배라 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³⁾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도성(丸都城)에 있는 고분 각저총(角抵塚), 삼실총(三室塚), 무용총(舞踊塚)의 벽화를 보면 두 사나이가 맨손으로 무예를 겨루는 형태⁵⁴⁾의 그림이 남아있다.

조선상고사에서는 신라 제24대 진흥왕(眞興王:재위 540~576)은 고구려의

51) 이대중. “청소년의 택견 수련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2013)” pp.7-11.

52) 박성호. “동이무예 택견(1998).” pp.1-5.

53) 김두섭. “전통무예 택견에 내재된 풍류적 특성 연구(2009).” p.14.

54) 이는 현재 박성호가 전수하고 있는 동이택견의 기본자세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선배제도를 모방하여 화랑제도를 도입했는데, 종목도 고구려에서 시행하던 수박(手搏), 격검(擊劍), 사예(射藝), 기마(騎馬), 덕견이, 깨금질, 씨름 등 각종 기예가 같았다고 주장한다.⁵⁵⁾ 고구려의 선배는 조백을 입어 조의(조의선인)라고 하듯이 신라의 선배는 꽃으로 치장하여 ‘화랑(花郎)’ 이라고 했다. 신라의 석굴암 입구에 부조된 나한상(羅漢像)과 신라 제27대 선덕여왕(善德女王: 재위 632~647)때 세운 분황사의 탑 기단에 부조한 인왕입상(仁王立像), 그리고 절 입구에서 있는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 등에서 우리는 택견의 공격과 방어 자세와 흡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⁵⁶⁾

<표9> 옛 고분 벽화 및 풍속도 중 택견과 연관이 있는 장면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백제는 고구려와 같은 부여계가 지배계층을 이룬 나라이다. 백제의 지배계층은 고구려의 지배계층과 같았기에 고구려의 풍속이 백제에 그대로 전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보면 백제의 벼슬아치 및 수박(手搏)에 능한 무인을 일본 조정에서 초청하여 일본의 무술인과 상박(相搏)하게 하였다.” 는 기록이 있는데⁵⁷⁾, 이는 대일 공공외교에서 우리가 심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써, 백제와 교류가 많았던 일본이 백제로부터 수박(手搏)을 수입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김두섭(2009)은 고려 시대에는 택견보다 수박이 더 많이 역사 문헌 자료

55) 김두섭. “전통무예 택견에 내재된 풍류적 특성 연구(2009).” p.15.

56) 동이택견의 ‘손 해치기’와 유사한 동작으로 보인다.

57) 김두섭. “전통무예 택견에 내재된 풍류적 특성 연구(2009).” p.14.

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수박이 택견과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 당시 수박은 신분 상승의 수단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고려사(高麗史)의 택견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杜景升 全州萬頃縣人 厚少文 有勇力 初補控鶴軍 手搏者 招景升爲伍 其舅上將軍文儒寶聞之日{搏 賤技也 非壯士所爲 景升遂不往

두경승은 전주 만경현 사람이니 성품이 돈후하여 꾸밈이 적고 용력이 있었다. 처음 공학군이 되었을 때 수박하는 자가 두경승을 불러 대오를 삼으니 그 외숙 상장군 문유보가 이 말을 듣고 이르기를, “수박은 천기니 장사의 할 바 아니라”고 하매 두경승이 드디어 가지 아니하였다. 두경승은 정중부의 난 때 사람이니 1170년경의 일이다.

- 高麗史 수박(手搏) 장사(壯士)(권100 열전13 제신 두경승)

癸巳 幸賞春亭 觀手搏戲

게사에 상춘정에 행차하여 수박희를 관람하였다.

- 高麗史 수박희(手搏) (권25 충혜황 후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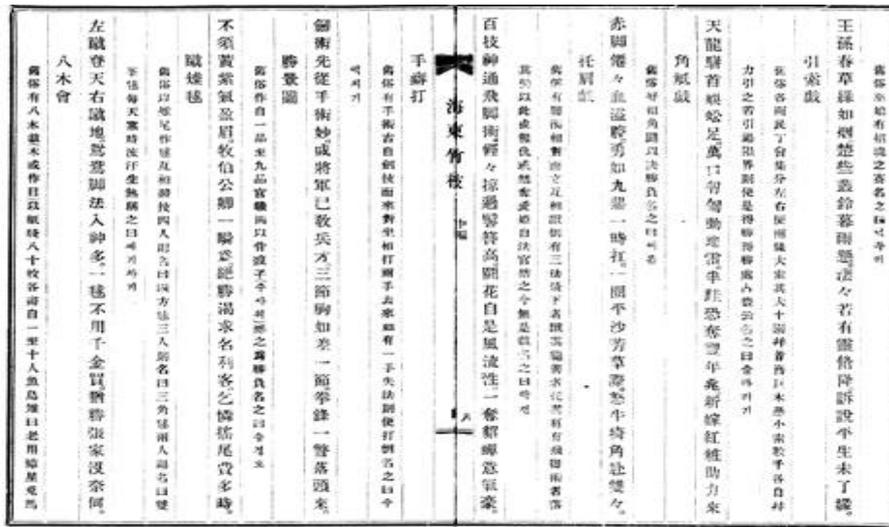
조선 시대의 택견에 관한 자료는 비교적 기록으로 선명하게 남아있다. 1798년 편찬된 재물보(才物譜)에는 ‘탁견(托肩)’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으며⁵⁸⁾, 현종 12년(1846년)에는 궁중 화원인 혜산(惠山) 유숙(劉淑)이 그린 대쾌도(大快圖)⁵⁹⁾에 단오에 씨름과 택견을 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정조(正祖)는 특히 무사(武士)를 양성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권장하였는데, 이덕무(李德懋: 1741~1793), 박제가(朴齊家: 1750~1815) 등을 시켜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⁶⁰⁾를 간행했고, 이 책의 권법보(拳法譜)와 권법총보(拳法總譜)는 수박(手搏)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최영년(崔永年)⁶¹⁾이 지은 해동죽지(海東竹枝, 1925)에는 탁견회와 수벽타(手癖打)를 분리하여 한시(漢詩)로 그 동작을 읊은 것이 전하여지고 있는데, 탁견(托肩)은 각술(脚術)이고 수벽타(手癖打)는 수박(手搏) 곧 수술(手術)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58)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p.28.

59) <표9>의 맨 우측 그림

60) 조선 정조 때 이덕무(李德懋)·박제가(朴齊家)·백동수(白東修)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종합무에서

61) 조선 말기의 문신, 서예가.



<그림7. 최영년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 기록되어 있는 탁견희와 수벽희에 관한 부분>

탁견희 옛 풍속에 각술(脚術)이라고 있는데, 서로 대하여 서서 서로 차서 거꾸러뜨린다.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최하는 넓적다리 정도를 차고 잘하는 자는 어깨를 차고 비각술(飛脚術)이 있는 자는 상투를 떨어뜨린다. 이것으로 혹은 원수도 갓고 혹은 사랑하는 여자를 내기하여 빼앗는다. 법과 관(官)에서 금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난이 없다. 이것을 탁견(托肩)이라고 한다. 수벽타 옛 풍속에 수술(手術)이 있는데 예전에 칼 쓰는 기술에서 온 것이다. 마주 앉아서 서로 치는 것인데 두 손이 왔다 갔다 할 때 만일 한 손이라도 법에 어기면 곧 타도(打倒)를 당한다. 이것을 수벽치기라고도 한다.

1910년 한일합방이후로 일본은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은 모두 말살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가운데 택견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의 대상이었다. 일본은 택견을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고, 일제 순사들은 택견꾼들을 보는 대로 잡아갔다. 택견 무형문화재인 고(故) 송덕기는 택견시합을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못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리에 소수의 택견꾼들에 의해 택견이 전승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⁶²⁾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찾고 기르자는 움직임이 급속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전하는 전통무예 택견의 계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 전승되었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는 경기 이남 지방의 택견으로 한양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고(故) 송덕기가 고(故) 신한승(辛漢承)에게 가르쳐 주었고, 신한승이 체계를 잡고 정립하여 후대에 전한 택견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박성호에 의해 경기 이북의 평

62) 김두섭. “전통무예 택견에 내재된 풍류적 특성 연구(2009)” p.16.

안북도 신의주 지역의 택견이 전수되고 있는데 이를 박성호는 동이택견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 모두 우리 민족의 무예 택견인데, 현재 택견은 1983년 6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림8. 왼쪽부터 고 송덕기옹, 3대 신한승옹, 정경화의 모습, 출처: 정경화, 택견원론(2002)>

박지영(2014)의 연구에서 1895년에 이미 택견이 프랑스에 소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895년 스투어트 콜린의 『Korean Games』와 『한불 던』에 소개되어 있는 조선의 택견에 관한 자료는 택견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프랑스인이 소개하고 있는 택견은 ‘택견하기(Htaik-kyen-ha-ki)’라는 국어의 명사적 표현으로 프랑스 전통복싱인 ‘사바트(Savate[savat])⁶³⁾와 비교하여 소개되어 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왜냐하면, 조선의 택견과 프랑스의 사바트 모두 하체를 이용한 ‘발차기’ 위주의 무술이기 때문이다.⁶⁴⁾

또한, 1880년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단이 『한불사전 韓佛字典 DICTIONNAIRECOREEN-FRANCAIS』에 택견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있다. 당시 그들은 택견을 ‘택견하다’라는 동사형으로 기록하였다. 그에 대한 해석으로 ‘택견하다’는 ‘아이들의 놀이로 다리와 팔로 상대방과 겨루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로 풀이되어 있다.⁶⁵⁾

63) Savate의 불어 발음은 ‘사바트’[savat]이며, 프랑스 전통복싱(Boxing: Fighting) 스포츠이다.

64)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p.29.

65)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p.29.

<표10> 1895년에 이미 프랑스에 소개되어 있는 택견에 대한 설명

<p>XXXII. HTAIK-KYEN-HA-KI—KICKING (<i>Fr. Savate</i>).</p> <p><i>Htaik kyen-ha-ki</i> is a combat between two players, chiefly with the feet. They take their positions with their feet apart, facing each other, and each endeavors to kick the other's foot from under him. A player may take one step backward with either foot to a third place. His feet, therefore, always stand in one of three positions. One leads with a kick at one of his opponent's legs. He moves that leg back and kicks in turn. A high kick is permitted, and is caught with the hands. The object is to throw the opponent.</p> <p>This game also occurs in Japan, but the Chinese laborers from Canton do not appear to be familiar with it.</p>	<p>...sir un parti pour le mariage, choisir un gendre ou une bru.</p> <p>*택견하다, HTAIK-KYEN-HA-TA. 擇遣. Jeu des enfants, qui consiste à parer, avec le pied ou la main, le coup que porte l'adversaire également avec le pied ou la main; battre de la semelle, jouer de la savate.</p> <p>*탁근하다, HTAIK-KEUN-HA-TA. 탁近. Etre proche.</p> <p>douer la baston.</p> <p>*타지, HTAI-TI. Il ajouté à une lettre oublié sur la gr.</p> <p>*타쥬년, HTAI-TI-cièr, femme qui des superstitions.</p> <p>*타쥬. HTAI-TI-cièr.</p>
<p>『코리아게임즈』, HTAIK-KYEN-HA-KI (택견하기)</p>	<p>『한불전』, HTAIK-KYEN-HA-TA (택견하다)</p>

출처: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이처럼 택견은 우리의 생각보다 일찍이 서양에 전파되었다. 현재 프랑스에는 프랑스택견본부(Taekkyon France et de l'association Centre Français du Taekkyon)가 2010년도에 조직되어 활발한 전파 활동을 하고 있다.⁶⁶⁾

2) 택견의 원리와 특성

택견이 일본의 무도인 가라테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예인 이유는 바로 택견에 담겨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과 택견의 운동 원리 때문이다. 택견의 이치는 한마디로 원(圓), 방(方), 각(角)으로 표현할 수 있다. 택견의 가장 기본적인 손놀림인 활갯짓의 선의 흐름과 방향이 원을 그리는 모양이고, 방이란 상대방과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서기(standing)의 형태이며, 택견의 가장 기본적인 발놀림(step)인 품(品)밟기는 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각은 여러 방향의 힘이나 무게에 대하여 가장 안정적인 구조물의 형태이다. (정경화, 2002) 또한, 품밟기는 앞쪽 방향에 대하여 좌(左), 우(右)로 밟기는 삼각구조(三角構造)의 보법(步法)을 수련하는 것으로서 일명 '삼각보법(三角步法)'이라고도 하며, 손놀림의 활갯짓과 더불어 택견의 기본이 되는 몸가짐이라고 한다. (김두섭, 2009)

택견의 원리에 대한 동이택견 전수자 박성호의 설명 또한 정경화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박성호의 택견은 북쪽 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술과

66)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p.30.

한 분의 스승님 문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련하였다는 면에서 경기 이남 지역의 택견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동이택견은 경기 이남 지방의 택견 또는 한양 택견과는 다소 다른 체계 및 수련 방식을 가지고 있다. 박성호(1998)는 “80년대부터 송덕기, 신한승의 택견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는데, 신한승의 제자 정경화 등이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현실로, 그러나 그들의 택견에는 시대의 단절로 인한 기본 동작들이 많이 소실된 것 같고 또한 한 분의 스승님 문하에서 오랜 세월 동안 무예를 익히지 않아 기본수가 날수로 이루어져 있어 연결성이 없으며 동작의 유연함과 구성의 치밀성이 뒤떨어진다.” 고 하였다.

또한, 박성호(1998)는 지방마다 각 지역의 방언이 있어 언어가 다르듯이 지역마다 택견의 형태나 주로 사용되는 기술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송덕기, 신한승, 정경화로 내려오는 택견에는 없는 기술이 평안북도 지역의 택견에는 있을 수 있고, 서로 발질의 모양도 제각기 다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예로 평안남도 지방에서는 대갈바지기술(박치기)을 택견의 특기로 쓰는가 하면 함경남북도 지방에서는 잽이걸이기술(잡기, 걸기)이 발전되어 있고 평안북도 지방에서는 발질(발차기), 솟구치기 등이 발전하였다고 한다.⁶⁷⁾ 이처럼 신체 의 한 부분을 특징적으로 이용한 택견은 쓰는 용도에 따라 사람의 몸 전체가 무기로 활용되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사까지 전설적인 싸움꾼으로 이름을 떨친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의 시라소니 이성순(1916~1983)의 주특기는 박치기와 공중잡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평안북도 신의주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던 박성호의 동이택견에 나오는 기술의 명칭과 일치하는 동작 명칭이다.

동이택견은 4가지의 보법을 기본동작으로 한다. 첫째, ‘갈지(之)자’ 얼루기 보법(步法)이다. 이는 양반걸음과 거의 흡사하다. 이 보법은 시연 또는 ‘본태(形)’을 익힐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보법이다. 둘째, ‘디긋(ㄷ)자’ 보법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가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 보법의 특징은 상대와 싸울 때 ‘견주기’ 축으로 거리를 채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련할 때 많이 쓰는 보법이기도 하다. 셋째, ‘삼수’ 보법이라 하여 天, 地, 人 삼수를 채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품(品)자’ 보법이다. 방향 감각을 익히고 회전력을 키울 수 있는 보법으로 실제 겨루기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평소 이 보법을 자

67) 박성호. “동이무예 택견(1998)” pp.1-5.

주 익히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박성호는 말한다. 이 보법을 많이 하면 고관절과 종아리가 튼튼해져 점프력과 탄력이 좋아지고 발차기의 회전력이 증가하여 파괴력이 높은 발차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각술을 익히고 싶다면 반드시 수련해야 하는 보법이다.⁶⁸⁾

<표11.> 동이택견 수련표(입문자 과정)

9급	1. 열르기 1. 손젓히기 1. 손헤치기 1. 족배차기	6급	13. 빗장걸이 14. 열치기 15. 손굽기 16. 띠죽치기	3급	25. 수족틀기 26. 어리짓 27. 덜미잡이 28. 발따귀	1단	37. 내려받기 38. 활개치기 39. 활개퍼기 40. 깎음발질 41. 짓혀밀기 42. 곱추밀기 43. 돌개치기
	5. 손밀기 6. 손 내주기 7. 활개막기 8. 내차기		17. 열음세 18. 활개돌리기 19. 숨틀차기 20. 눈질러차기		29. 겁주기 30. 잡아대기 31. 두손굽기 32. 곱은발질		
	9. 손 밀치기 10. 무릎치기 11. 낭심받기 12. 오금걸이		21. 어깨치기 22. 도끼질 23. 싸다듬질 24. 팽이발질		33. 이마재기 34. 막음질 35. 한손굽기 36. 두발당상		
8급		5급		2급			
7급		4급		1급			

출처: 박성호 개인 소장

또한, 박성호(1998)는 세인들이 일반적으로 택견을 생각할 때, 그 동작이 춤같이 흐느적거리는 듯하여 수비형 무술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술이라고 한다. 그것은 동이택견 수련 시 송덕기 계보의 택견에서는 ‘이크’, ‘에크’, ‘이크’의 3박자 리듬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에끼’, ‘이크’ 등의 기합 소리를 내는데, ‘에끼’는 공격 또는 전진하면서 지르는 기합 소리이고, 이는 ‘혼낸다’, ‘공격한다’의 의미로 조심하라는 경고라고 하며, 뒤로 후진하는 보법에서는 ‘이크’라 하는데, 이는 ‘무섭다’, ‘겁난다’는 의미로 상대를 피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택견은 ‘선(先) 공격 후(後) 방어’의 무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성호는 동이택견에는 타무술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발질이 많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발질의 종류는 깎아내리기, 차기, 걸기, 당기기,

68) 박성호. “동이무예 택견(1998)” pp.1-5.

밀기, 치기, 솟구치기, 막음질, 품밟기, 돌기 등 다양하다. 또한, 공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중잡이 발질은 휘몰차기, 도리깨질, 팽이치기, 쟁기차기, 난간치기, 돌개차기 등 그 기술의 종류와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발질에는 내차는 발질과 내지르는 발질이 있는데, 내차는 발질은 유연한 곡선의 발질로 상대의 강한 힘의 흐름을 흘려보내고 내려썩아 상대를 쓰러뜨리는 발질이고, 내지르는 발질은 찬다는 것과는 달리 내밀어버리는 동작이다. 이것은 상대가 넘어지거나 중심을 잃게 하는 타법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택견 발질의 꽃이라고 하는 ‘비각술(飛脚術)’이 있다. 비각술은 날아올라 발의 끝으로 상대방의 상투 끝을 찰 정도로 위력이 있는 발질로써 해동죽지(海東竹枝, 1925)에 ‘탁견(托肩)은 각술(脚術)이다.’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되듯이 우리의 선조들이 익히고 사용했던 택견 고유의 화려한 발질이다.

또한, 현재 박성호는 발질의 시연에서 발차기로 대나무를 베어내는 기술⁶⁹⁾을 선보임으로써 동이탁견의 강함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무예 탁견이 얼마나 강한 무예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무예 동이탁견을 소개한다면 일본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표12.> 동이탁견의 발차기 모습



<사진 출처: 박성호 개인 소장>

69) 박성호의 설명에 의하면, 동이탁견의 얼르기 보법을 오랜 시간 꾸준히 수련하면 뼈가 단단해지고 담력이 생겨서 기본 발차기로 각목 정도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고, 2~3년 수련하면 목검을 부러뜨릴 수 있으며, 30년 이상 수련 시 대나무를 검으로 베듯이 발차기로 베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3) 택견의 정신적·교육적 가치

정경화(2002)는 택견의 정신은 고구려의 선배 정신, 신라의 화랑정신, 고려의 호국정신 그리고 조선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참⁷⁰⁾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선상고사에서 신채호가 언급하였듯이 상무 정신이 투철하였던 고구려는 문무에 힘쓰는 훌륭한 선배제도가 있었기에 백성들이 협동심과 애국심을 발휘하였다. 신라 역시 국가 차원에서 화랑도를 통해 원근 산수를 탐험하여 자연과 벗하며 학문에 힘쓰고 무술을 연마하여 환난 시에는 나라를 구제하고 화평 시에는 신의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신자세를 기르게 하였다. 정경화는 택견의 정신 역시 고구려의 선배 정신 및 신라의 화랑도 정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박성호(1998)는 택견의 목적은 자연과 벗하여 무예를 수련함으로써 저절로 체득하는 인격 수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박성호의 동이택견에서 강조하고 있는 택견의 정신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자연합일사상(自然合一思想)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무예 택견이 일본의 가라테와는 다른 무술적 가치관을 가지고 수련하는 무예로써 타 국가를 정복하거나 자신의 강함을 뽐내며 타자를 정복하는 식의 무도 철학이 아닌, 전시에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보호하고 평시에는 수련자의 인격을 단련하는 인격 수행의 도구로 무예를 활용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체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근현대의 체육학의 방향⁷¹⁾과 동일하게 완성된 인간을 향해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무예의 초점이 맞춰져 전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인교육에 무예를 활용한 셈이다.

임영모(2001)는 택견이 수련 및 경기 시 상대방과의 신체적 접촉을 하며 수련 및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풀고, 사회성이 결핍되지 않는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경기 후에는 상호 이해를 하게 되므로 정신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그것과 더불어 체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므로 스포츠로서의 특성도 훌륭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⁷²⁾

70) 정경화는 '참'이란 한마디로 전통문화의 계승을 의미한다고 한다. <정경화, 택견원론(2002)>

71) 이명기. "루소의 자연주의 체육사상(2009)" p.57.

72) 임영모. "택견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2001)." p.2.

2. 해동검도

1) 한국의 검 문화

무예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크게는 입식 타격기와 유술 그리고 무기술로 나눌 수 있고, 그중에서 검(劍)은 인류의 역사에서 상고시대부터 인류가 사용한 무기로 알려져 있다. 상고시대에는 검을 만든 재료에 따라 돌로 만든 석검과 청동으로 만든 동검이 있었고, 인류가 검을 만든 이유는 수렵을 위한 도구로써 칼, 호신 목적의 칼,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써의 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배달국 시대에는 치우천왕 체제에서 치우천왕의 친인척에서 선택한 81명의 장수들과 함께 갈로산에 들어가 광석으로 칼, 창, 화살촉 등을 만들었으며, 옹호산에서는 석검과 수검을 캐어 청동제 무기를 만들었다⁷³⁾고 하니 우리 민족이 무기를 제작하여 전투에 사용한 역사는 실로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현섭(2013)은 ‘검(劍)이라고 하는 것은 도(刀)와 구분해서 인식해야 하는데, 칼날이 한쪽 면에만 있는 것이 도(刀)이고 주로 상대를 베는 데 사용하며, 양쪽 모두 날이 있는 것은 검(劍)이고 찌르는 것이 주 기능이다.’ 고 한다. 근대화 이전의 개인 무기는 주로 활, 창, 검 등으로 생각해 볼 때 활과 창은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단점과 검은 근접전에서 적은 힘으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검이 개인 무기의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서 활동한 삼국시대에는 국가 체제가 정비되어 나라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철기문화가 무기류와 생활 도구에 유입된 시기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부족과 국가를 정복하지 않으면 자신이 정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상무정신(尙武精神)⁷⁴⁾이 강조되어 나라의 번영과 보전을 위해 학문과 무예를 겸한 인재를 양성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는 조선상고사에 문무를 겸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고구려의 조의선인, 백제의 수사도, 신라의 화랑도 등을 선발하였다는 기록에서 추정할 수 있다.⁷⁵⁾

73) 고동영. “한국상고체육사(1995)” pp.81-90.

74) 무예를 숭상하는 정신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상무정신을 바탕으로 한 영토 확장과 방어를 하며 국가의 부흥을 꾀하였었다.

75) 김정우. “해동검도의 발생배경과 가치에 관한 연구.(2015)” p.12

고대 우리 민족이 제작한 검 중 환두대도(環頭大刀)라는 것이 있다. 환두대도는 삼국시대 한반도를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사용했던 무기로써 자루 머리에 고리 모양 장식이 있는 외날 도검을 이르는 명칭이다. 환두대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모두 비슷한 형태로 출토되고 있으며, 왕 또는 지도자급의 무덤에서 주로 발견되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는 고구려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검은 검의 위용과 예술적 가치로 보아 검의 소유자의 위상을 높이고 지휘 또는 의전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⁷⁶⁾

<표13.> 고대 우리 민족의 검 <출처: 문화재청>



우리 민족의 고대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사료이며 그 예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에는 백제의 칠지도(七指刀)⁷⁷⁾가 있다. 칠지도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대일 스포츠 공공외교 및 청소년교류 시 칠지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양국의 고대사를 이해하고 한민족의 우수성 및 민족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76) 김정우. “해동검도의 발생배경과 가치에 관한 연구(2015).” p.11.

77) 칠지도는 광개토태왕비와 더불어 고대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를 알려주는 가장 오랜 문자 사료이다. 하지만 표면이 부식되어 일부 글자는 판독이 어렵다. 많은 연구와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총 60여 자가 확인되었으나, 몇몇 글자(侯·以·音·倭)는 여전히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글자는 다음과 같다. [앞면] 泰□四年十□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鍊□七支刀□辟百兵宜供侯王□□□□□ [뒷면]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世□奇生聖音故爲倭王旨造□□□世

<최찬욱. “七支刀와 4세기 百濟의 對倭關係 研究.(2005)”에서 요약, 정리>

활용하는 등 활용가치가 높은 검으로 생각된다.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이 372년 특별히 제작하여 일본의 왜왕(倭王)에게 하사한 것으로,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백제의 태자 기생(寄生)이 일본 왜왕(倭王)에게 하사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칠지도는 일본 천리시 석산신궁에 소장되어 있는데, 일곱 개의 가지가 달린 칼(총 길이 75cm)의 예술적 가치 및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기술력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⁷⁸⁾

고려 시대는 국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의 웅장하고 남성적인 기세를 이어받아 세워진 나라답게 무인들의 활동도 활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려는 산무사제도를 통해서 군사조직의 사유화 제도를 일부 허용하였다. 이는 개인적으로 건장하고 튼튼한 남자들이 개인 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 평시에는 문인, 농부, 승려 등 각기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시에 무사로 전쟁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고려는 수박, 검술, 창술, 기마 등의 무예로 인재 등용과 군인선발을 하는 평가 과목이 있었기에 무예를 통해서 출세와 신분 상승을 꾀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안자산, 1947)

조선에 와서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이어져 내려온 상무정신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듯한 양상을 준다. 조선은 성리학을 통한 이상향 건설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건국되었는데, 왕권의 강화와 더불어 유교 사상을 공부한 사대부들의 신권(臣權)이 왕권을 견제하고 왕권과 균형을 이루며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천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건국자인 이성계는 그 누구보다 무예가 특출난 사람이었다. 그러한 이성계조차도 정도전의 성리학 세력을 끌어들이면서 나라를 건설해야 했기에 무(武)를 천시하는 사대부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결국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져 임진왜란의 발발과 패배 그리고 중국적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역사의 수치와 모욕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⁷⁹⁾ 그런 와중에도 정조 14년(1790년)에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가 발간되어 무(武)의 체계를 잡고 강한 국방력을 갖추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⁸⁰⁾

78) 김정우. “해동검도의 발생배경과 가치에 관한 연구(2015).” p.12.

79) 신영호. “한국무예 변천사 연구(2007).” p.213.

80) 신영호. “한국무예 변천사 연구(2007).” pp.155-157.

지금에 와서는 무예도보통지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전통무예의 흐름이 끊긴 우리에게 선조들의 무예를 문헌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책이 되었다. 또한, 무예도보통지는 우리나라의 무예 가운데 검에 속한 내용을 연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료로써 현대에 와서는 해동검도의 창시자 김정호 역시 이 사료를 통해 옛 선조들의 검법을 복원시켰고, 정통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니 그 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이후로 일제 치하 36년 동안 일제가 우리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무예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우리의 전통 검법과 그 위력이 이때부터 끊기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김정우(2015)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는 우리 전통무예의 암흑기와 소멸기로 볼 수 있는데, 일제는 우리의 전통무예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민족정신을 약화 및 말살시키고자 하는 저의를 가지고 일본의 무술인 가라테, 유도, 검도⁸¹⁾를 전파하여 일본의 무도를 익히도록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는 산중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우리의 검을 비롯한 전통무예를 수련했던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개인 대 개인으로 전수되고 있었던 것이 차차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동검도 역시 김정호가 관악산에서 만났던 스승으로부터 배운 부분과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한 부분 그리고 기천문 등으로부터 배운 단전호흡 및 기본자세 등을 종합하여 정립하고 체계화하여서 세상에 내놓은 우리 민족의 얼이 숨어 있는 우리의 검 무예라고 할 수 있다.⁸²⁾

이렇듯 우리 민족은 상고시대부터 현대까지 고유의 검 무예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일본의 검도와는 구별되는 검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⁸³⁾

81) 해방 이후 일본의 무술들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으나 유도, 검도 등은 스포츠로서 존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유도와 검도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제가 사용한 무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또한 현실적으로 세계화 및 국제화된 시대에 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는 유도, 검도 등이 일본의 무술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김정우, “해동검도의 발생배경과 가치에 관한 연구. (2015)”>

82) 이영호. “전통무예로서 해동검도의 태동과 발전과정 연구 (2020)” p.74.

83) 강대환. “한국과 일본의 검도문화 비교 연구(2003).” pp.87-93.

2) 해동검도의 개요 및 수련체계

해동검도는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인 고구려의 무도로 설봉선인이라는 도사가 백두산 삼지연에 학문과 무예를 수련한다는 뜻의 ‘사무랑’이라는 도장을 설립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어른을 공경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마음가짐과 가르침 등을 무예와 함께 가르친 것이 효시가 되었다고 한다. 근래에 와서는 경기도 관악산 천인사에서 1961년 장백산이라 이름하는 스승으로부터 김정호가 전수받은 것을 현대에 맞게 정리하여 재탄생시켜 1982년도에 경기도 안양에 해동검도 도장을 설립하여 전파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김정호, 2009) 그러나 해동검도는 세계해동검도연맹 총재 김정호에 의해 1982년 창시된 무예임을 김정우(2015)는 밝히고 있다.⁸⁴⁾

해동검도의 수련체계는 김정호가 2003년 2월경 캐나다의 밴쿠버의 한 신문사와 인터뷰한 내용⁸⁵⁾에 잘 드러나 있고, 이영호(2020)의 연구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먼저 해동검도의 수련체계는 크게 검법, 격검, 베기, 정신수양, 단전호흡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⁸⁶⁾

검법(劍法)이란 태권도의 품새와 같은 것으로 자기 수련을 위한 형(型)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검법을 통해 수련자는 언제든지 홀로 수련할 수 있다. 해동검도에는 쌍수검법(1~12번), 심상검법, 본국검법 등 총 60여 가지 검법이 있다고 김정호는 말하고 있다. 격검(擊劍)이란 태권도의 겨루기와 같은 것으로 상대방을 마주하고 서서 대련하는 것이다. 격검은 상대방과 나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내부는 스폰지 재질이고, 외피는 인조가죽으로 되어있는 죽도 모양의 검을 이용하여 상호 대련하고 있다. 베기란 태권도의 격파와 같은 것으로 진검을 이용하여 대나무 또는 벗 짚단 등을 베는 행위로서 해동검도 시연에 자주 보이곤 한다. 진검을 이용하기에 성인 유단자의 경우에만 허용하며 고도의 정신 집중력과 주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동검도의 수련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목검을 이용하여 수련한다.

84) 김정우. “해동검도의 발생배경과 가치에 관한 연구(2015)” p.16

85)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sbdtype=&bld=4128>(검색일자: 2021.10.1.)

86) 이영호. “전통무예로서 해동검도의 태동과 발전과정 연구(2020)” pp.13-23.

수련형태로는 먼저 몸을 풀기 위한 준비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선(禪) 체조를 한다. 일단 선 체조는 운동 전 신체의 각 관절과 근육 등 운동에 필요한 부분을 풀어주고, 몸을 유연하게 하여 마음을 안정되게 하며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 7가지 기본자세 동작을 취하는데 이는 정적인 운동으로 스포츠학적으로 분류하면 등척성⁸⁷⁾ 운동에 속한다. 기본자세의 명칭은 자세의 모양에 따라 기마자세, 대도세, 금계독립팔상세, 자연세, 소도세, 범세, 복호세라고 한다.

기마자세는 내가신장(內家神掌)이라고도 하는 자세인데 기본자세 중 기본자세이다. 대도세는 대도견적세(大蹈見賊勢)의 줄임말로 멀리 공격하는 모양을 취하는 자세이며, 앞무릎을 굽혀주므로 무릎 관절을 교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대퇴사두근을 발달시킨다고 한다. 금계독립팔상세(金鷄獨立八像勢)는 문자 그대로 닭이 한 발로 서서 전, 후, 좌, 우를 경계하는 모양에서 비롯된 자세로 수련자는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고 다리의 전체적인 근력을 키우는 자세라고 한다. 자연세(自然勢)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이며, 어떤 자세로든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자세라고 한다. 소도세는 소도견적세(小蹈見賊勢)의 줄임말로 난이도가 높은 자세이며, 익숙한 수련자의 경우는 검을 들고 소도세를 취하면 하체의 용수철과 같은 탄력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세이다. 특히, 상체와 하체를 역방향을 취하게 함으로써 하체의 모든 부위와 허리 부위의 근육과 관절을 교정시켜주는 효과가 매우 강하다고 한다. 허벅다리 근육과 정강이 근육을 발달시켜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유의한 자세이다. 범세(虎勢)는 범(호랑이)이 서 있는 자세로 가라테의 겨루기 기본자세와 비슷한 모양이다. 극진가라테 창시자 한국계 일본인 최배달(1923~1994)의 말로는 범세는 상대를 예의주시하고 공격자의 자세를 변환하기 용이한 자세라고 한다. 복호세(伏虎勢)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움츠려 있는 자세에서 유래한 자세로 골반과 허리의 유연성과 하체의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자세이다.⁸⁸⁾

특히, 군산 해동검도 총본관 박○○ 관장의 설명에 의하면, 기마자세는

87) 등척성 운동 또는 아이소메트릭 운동(Isometric exercise)은 근육이 수축 중에 관절 각과 근육 길이가 변하지 않는 근골격계 운동의 한 유형이다. <구희서. “운동치료학(1995)”, p.105>

88) 박일용. “기천문 수련이 뒤시엔느형 근이양증 환자의 등속성 슬관절과 고관절 근기능 및 자세 변환에 미치는 영향(2013)” pp.5-15.

자세를 유지하며 단전호흡을 하면 단전에 기(氣)를 축적하는 것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이를 단전축기(丹田築氣)라고 하며, 박○○ 관장은 본인도 해동검도에 입문할 당시 위 김정호의 1대 직계 제자의 문하에서 수련하였는데,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7시까지 오전 1시간씩 기마자세를 섰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수련과정을 겪으면서 척추가 교정이 되어 체형이 바르게 되고, 단전축기가 되어 몸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신장에 이어 개운기공(開運氣功)을 하는데, 개운기공은 몸 안의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조절하여 강한 기운과 부드러운 기운을 함께 운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호흡조절과 함께 몸 안에 강한 내기를 쌓아 엄청난 공력을 증진시켜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정기신일(精氣信一)하게 도와준다고 한다. 또한, 박○○ 관장의 설명으로는 베기 수련도 하는데 진검으로 베기에 앞서 목검으로 베기의 기본동작인 정면내려 베기를 비롯하여 좌/우 베기, 삼단내려 베기, 빛 광(光)자 베기, 대도세(전·후) 베기, 자연세(전·후·좌·우보법, 이어내려베기), 소도세(전·후) 베기, 검들고 조천세 등을 익힌다고 한다. 그리고 기본자세, 기본 베기 동작, 쌍수검법 12가지, 심상검법 등 기본적인 검법 등과 병행하여 격검 수련을 하고 입문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실력이 쌓이면 성인의 경우 그때야 비로소 진검을 잡고 발검(拔劍) 및 착도(着刀)를 연습하고 진검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때 진검으로 신문지 베기, 젓가락 자르기, 촛불 끄기, 각목격파, 벗짚 베기, 대나무 베기 등을 수련하게 된다고 한다.

<표14.> 해동검도 검잡고 기본자세



출처: 윤광희, “해동검도의 검형분석(2009)”

반면, 일본식 검도의 특징은 호면(護面; 머리와 얼굴을 보호)과 갑(甲; 가슴과 몸통을 보호)과 갑상(甲裳; 허리 아래를 보호)을 착용하고, 나이와 성별(性別)에 따라 일정한 중량(400~500g)과 길이(114~120cm)의 죽도를 사용하여 상대

방과 겨루는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본래 수련용으로 사용했던 육쪽짜리 죽도를 왜소한 일본인들이 자신의 체구에 맞추어 네쪽의 죽도로 개조하여 사용하였고⁸⁹⁾, 누가 뭐라고 하여도 일본식 검도를 계승한 대한검도회 스타일의 검도는 대일 공공외교 시 일본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자 하는 한국의 전통무예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표15.> 해동검도와 일본식 검도의 격검 비교

<p>김정호의 격검 실기 사진 <출처: 김정우. “해동검도의 발생 배경과 가치에 관한 연구(2015)”></p>	<p>일본식 검도의 겨루기 사진 <출처: 인터넷, 검색일자: 2021.8.15></p>

3) 해동검도의 정신과 문화유산적 가치의 가능성

해동검도는 검술과 함께 정신과 육체, 삼박자를 고루 단련하는 데 중점을 둔 우리 선조들의 고대 생활양식이 내포된 무술을 현대사회에 맞게 복원하고 각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을 익히고 검결(劍訣)의 원리를 깨달아 가는 것과 비례하여 인내심과 절제력을 포함한 강인한 정신력의 배양과 나(自我)를 비우면서 시선을 나로부터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내가 속한 국가 공동체로 향해 돌려 나의 힘과 무력(武力)을 올바른 마음으로 사용하는 충(忠), 효(孝), 예(禮), 의(義)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봉사와 희생정신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무예인 것이다.⁹⁰⁾

해동검도의 내용과 무술 술기의 양은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검법만 해도 무려 60여 가지인데, 검을 잡기 전에 익혀야 하는 기본자세를 배우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기마자세부터 시작하여 대도세, 소도세, 금계독립팔상세 등 동작들을 어설피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동작으로 신경을 집중하여 혈맥을 타고

89) 허준호. “태권도, 해동검도, 택견수련이 초등학생의 신체구성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2005)” p.14.
 90) 김슬예. “초등학생들의 해동검도 수련몰입과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의 관계(2011)” pp.6-7.

흐르는 기(氣)의 흐름을 느껴 정적의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며, 온몸의 땀구멍에서 땀이 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야 비로소 옛 무예의 맛을 조금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야 진검도 아닌 목검으로 정면 내려 베기부터 시작하여 빛 광(光)자 베기 등 베기 연습을 한 후 진검으로 벗짚을 베고 대나무를 베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검무예를 익힌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의 투자와 함께 개인적인 땀과 눈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전북 군산시에서 해동검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 관장의 설명에 의하면, 검을 잡고 수련하는 이의 정신은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道 何事不成)’의 자세와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상태로 검을 잡아야 하며, 검으로 허공을 베는 것은 물체를 베고자 함이 아니요, 자신의 못난 마음과 모난 성격을 베는 것이요, 성인(成人)에게는 견물생심(見物生心)이 있는데 이를 베어내고 단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업에 몰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정신력을 기르고자 함이며, 학생에게는 나약한 마음과 산만한 마음을 베어내어 학교 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말고 단단하고 차분한 성격을 형성하여⁹¹⁾ 급우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차후 사회생활을 하거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정신력과 체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니 이 모든 것들이 검의 정신에 포함되어 있어 결국 부모 공경과 친구 간 의리(義理) 및 나라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린 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윤오영, 1976)」의 내용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 내용인즉 수필 작가가 서울에 출장을 다녀오다가 나무를 깎아 빨래 방망이를 만드는 노인을 보고 빨래 방망이를 사서 집에 가져가면 집사람이 좋아하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나 만드는데 십여 분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빨래 방망이 하나를 주문했다. 그런데 노인은 나무를 깎은 뒤 그것을 벌레 놓아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또 깎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또 깎는 식으로 만들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필 작가는 빨리 만들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불평이 녹아있는 통명스러운 어조로 물어봤다고 한다. 그랬더니 노인은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

91) 김슬예. “초등학생들의 해동검도 수련몰입과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의 관계.(2011)” p.38.에서 해동검도의 수련이 초등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과 상관관계가 있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며, 빨래 방망이 하나를 만드는데도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빨래 방망이가 드디어 완성이 되어 집에 가지고 갔더니 글쓴이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 부인 曰, “배가 너무 부르면 옷감을 다듬다가 치기를 잘 하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며,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잇살이 퍼지지 않고 손에 헤먹기 쉽다. 요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체로 만나기가 어렵다.”

수필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인의 장인 정신(匠人精神)을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의 문화에는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옛날 무엇을 만들든 우리 민족에게는 제대로 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장인정신이 있어 무엇인가를 완성 시키려거든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걸렸다.⁹²⁾ 도자기를 만들든, 검을 제작하든, 집을 건축하든, 음식을 장만하든 우리네 문화에서는 기초부터 완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재촉하거나 또 다른 길을 추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훈민정음의 글귀처럼, 우리 선조들은 뿌리 깊은 무엇인가를 제반사에서 추구하곤 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의 전통무예를 통해 하나의 무엇이 완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땀과 노력 등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장인 정신도 생각해 보게 된다. 근래에는 이러한 특징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논문도 있다.⁹³⁾

김관민, 이범렬(2005)은 해동검도의 가치를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하여 결론 내리고 있다. 첫째, 역사적 가치이다. 해동검도의 수련은 한국적인 문화유산의 가치가 절로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선조들이 대대로 해오던 몸동작과 몸짓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검선과 형(型)으로 구성된 검결의 흐름을 우리 민족 고유의 삼박자 리듬을 살려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므로 선조들의 무예를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민족 고유의 특징이 살아있는 한국적인 무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문화적 가치이다. 해동검도를 통해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인 충(忠), 효(孝), 예(禮), 의(義)를 배우게 되면 건전한 사회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92) 이대중. “청소년의 태권 수련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2013)” p.64. 태권 품밧기의 느낌의 미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93) 김슬예. “초등학생들의 해동검도 수련물입과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의 관계.(2011)”

될 것이다. 또한,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의 기호에 맞게 충, 효, 예, 의에 관한 교육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해동검도를 수련하는 어린아이들의 인구도 많아지고 더불어 해동검도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셋째, 해동검도의 사회문화적 가치의 상승은 경제적 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신 수련을 위한 전통무예 또는 무형의 콘텐츠에 대해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여 갑론을박 평가를 내리곤 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통계 및 연구 등의 어느 정도의 객관화 과정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일차적으로 해동검도 수련자의 검도 수련과 관련된 직간접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일이다. 거기에 국내와 해외에서 해동검도를 수련하는 수련생의 대략적인 인구수를 곱하면 해동검도로 인해 산출되는 경제 규모를 생각할 수 있다. 해외에서 해동검도를 수련하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3. 대일 스포츠 공공외교와 청소년교류

1) 대일 공공외교 자산으로서 태권과 해동검도

과거 한창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던 1980년대에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성황리에 치루고 그것을 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지금에 이르는 국가발전을 할 수 있었다.⁹⁴⁾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통해 한국은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과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다.⁹⁵⁾ 현재 영국에서 현역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1992~현재)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공공외교적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⁹⁶⁾, 2019년 12월 번리전에서 70m를 질주하여 넣은 경이로운 골은 당시 올해의

94) 박권.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연구(2002).” pp.53-63.

95) 민성홍. “국가 대형이벤트 사례 연구(2003).” p.156.

96) <https://blog.naver.com/hufspublicdiplomacy/222528597086> <검색일: 2021.12.20.>

골로 선정되었을 만큼 유럽 사람들과 세계 축구팬들의 뇌리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켜 놓았고, 이는 곧 세계 속에 당당한 한국인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여소영(2006)은 고등학생 상대로 조사한 우리나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① 올림픽,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볼 때(43.2%), ②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상품, 문화가 인정받을 때(20.8%), ③ 환경보호, 난민구호 등 범세계적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5.3%) 순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한다.⁹⁷⁾ 즉, 위의 올림픽, 월드컵, 손흥민의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활약 등 국제적인 스포츠 소재는 공공외교의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공공외교의 대한민국 대표적인 콘텐츠가 되는 것은 한류의 원조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태권도이다. 태권도는 세계 200개국 이상이 한국 말로 구호를 외치며 배우는 글로벌 스포츠이다.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무도 스포츠로 자리 잡은 태권도는 수련자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어 미국 등 해외에서는 많은 청소년이 탈선하는 것을 막고 가정과 학교와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주는 교육적 효과가 크기에, 다른 무술보다는 학부모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태권도는 확실히 일본의 가라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술임에는 틀림이 없다.⁹⁸⁾ 그렇기에 대일 스포츠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 청소년교류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태권도의 한류 열풍이 미국 또는 유럽의 것과 같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일 스포츠 공공외교에서 우리의 전통무예를 활용해 보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택견과 해동검도는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라고 할 수 있다. 김두섭(2009)은 택견의 동작은 한국의 전통춤과 함께 가장 독창적이면서 특유한 한국적 색이 강한 몸짓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97) 여소영. “고등학생들의 세계화 의식 실태 분석.(2006)” p.26.

98) 엄재영. “태권도 태극품새와 가라테 카타 평안의 가솔체계 비교분석(2016)” p.18.

임새봄. “근대 태권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2009)” p.54.

하였다. 공공외교는 상호 이해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기반 구축에 일차적 목표가 있다.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적인 몸짓인 한국의 전통무예를 체험하고 수련하기를 제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전통 신체활동에는 한국인의 관습, 예절 등이 오랜 세월에 걸쳐 투영되어 있기에 한국의 전통무예를 수련하는 행위를 포함한 한국의 전통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 측면을 실생활에 구현하게 되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고,⁹⁹⁾ 이것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택견과 해동검도의 대일 청소년교류 스포츠 공공외교 소재 활용 제안의 또 다른 이유는 박지영(2014)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문화의 학습과 공유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인과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¹⁰⁰⁾ 사회화는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 세계와 스스로에 대해 학습을 통해 알아가고 이것을 내재화하게 되는 일련의 복잡한 상호작용과정이라 정의한다면¹⁰¹⁾, 택견을 수련하여 한국을 더욱 잘 이해한 상태¹⁰²⁾에서의 일본 청소년과 한국의 택견 수련인과 교류는 국적을 초월하여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게 되고, 신체활동을 함께 하면서 공유된 소통의 감정을 맛보게 되기에¹⁰³⁾ 한일 간 문화 차이로 인한 장벽과 과거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적대적 감정의 잔재를 뛰어넘어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우리 전통무예를 활용한 청소년교류의 확장 방법

일본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펼치는 공공외교 정책이 지속 발전 가능한 비전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활동 가능한 일본의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한일 양국 청소년교류 콘텐츠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 청소년

99)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p.86.

100)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p.85.

101) 윤혜원. “社會化와 Communication에 관한 研究.(1979)”. p.5.

102) 김두섭. “전통무예 택견에 내재된 풍류적 특성 연구(2009)” p.35. 택견에는 3박자 리듬이 있는데, 이는 한국 고유 사상 天, 地, 人 및 환인, 환웅, 단군의 三神신앙과도 연관이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택견수련은 한국인의 근본적인 사상과 만날 수 있다.

103)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p.87

교류의 아이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청소년교류와 그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모티브를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 방법에 있어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1963년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사무국(DFJW) 설립 조약에 따르면 다양한 교류활동 분야를 명시하고 있는데 5항 「청소년교류 업무와 스포츠 활동, 청소년 운동선수를 위한 공동훈련을 위한 전문 인력과 협력자들의 교류와 육성」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교류에서 스포츠 활동의 교류는 매우 필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스포츠의 다양한 분야 중 우리의 전통문화인 전통무예 택견과 해동검도를 일본의 청소년 상대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 본다.

일본 역시도 이미 각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육성 및 청소년 스포츠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들과도 국제교류 활동을 원한다고 한다.¹⁰⁴⁾ 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현재 교육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써 위탁 시행하고 있는 한·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대일 청소년교류 스포츠 공공외교를 추가하여 일본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국의 전통무예를 체험하는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적용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일본 측에서도 한국의 청소년을 상대로 일본 전통 무도 수업을 개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무예를 통해 상대방의 문화를 체험하면 진정한 이해와 얹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곧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3) 기대효과

허준호(2005)는 경남의 J시 G초등학교 남학생 27명을 대상으로 태권도 집단 9명, 해동검도 집단 9명, 택견 집단 9명으로 삼등분하여 주 5회, 60분, 12주간 집단별로 운동을 실시하게 한 후, 신체의 구성과 체력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더니, 신체구성 부분에서 세 집단 모두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택견과 해동검도를 신체의 성장

104) 임지연, 장덕선, 김나라. “청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2014).” p.63.

기에 있는 일본의 청소년들이 배우고 익혀 수련하게 된다면 일차적으로 수련자의 골격 및 체력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¹⁰⁵⁾ 이는 박지영(2014)의 연구에서도 프랑스인들의 택견수련에 참여하는 개인적인 이유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택견을 수련하는 프랑스인들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아실현, 신체발달, 정신수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¹⁰⁶⁾

둘째, 일본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전통무예를 수련함으로써 한국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신체활동에는 한국의 문화로 표현되는 한국인의 예절과 관습이 오랜 세월에 걸쳐 투영되어 있다.¹⁰⁷⁾ 그러므로 일본 청소년들의 택견과 해동검도의 참여는 이러한 정신적 측면을 택견과 해동검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구현시켜 한국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하나의 단어를 암기하고자 해도 그 단어의 어원을 통해 제대로 된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듯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면 그것과 연결된 내용의 근원을 알고자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 공부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박지영(2014)의 연구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적, 나이 등의 사회적 지표와 상관없이 한국 전통 신체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과 동료애를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청소년 상대로 택견과 해동검도를 가르치게 되면 일본 자체에서 한국의 택견과 해동검도를 수련하는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친한(親韓) 그룹이 일본 내에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과 한국인과의 교류는 끈끈한 인간적 유대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전통무예를 일본의 청소년들이 수련하게 된다면 문화교류를 통한 일본 내 한국문화 소비의 확산을 가져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하지 못한 대다수 일본인의 마음속에 잔존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조용히 부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5) 허준호. “태권도, 해동검도, 택견수련이 초등학생의 신체구성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2006)” pp.50-51.

106)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pp.81-83.

107)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p.86

V. 요약 및 결론

지난 2021년 10월 6일자 매일경제 신문은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가 현지 시각으로 5일에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소프트파워 이론의 창안자 조세프 나이(Joseph S. Nye Jr. 1937~현재) 前 하버드 석좌교수의 한국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하였다.

조세프 나이는 “소프트파워가 한 국가의 문화, 국내 영역의 가치, 정당한 국제정책 등 세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 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성공 위에 최근 BTS, 오징어 게임 등 한국의 대중문화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껴 한국문화에 대한 인기가 오르고 있어 공공외교의 활용 소재가 많아졌다.” 고 얘기했다.

또한,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면 일본과 같은 이웃 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음식, 문화, 음악과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가 가장 쉬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빅터 차의 고견대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쉬운 출발점은 소프트파워 분야일 것이다. 그중 한국의 전통문화인 전통무예를 통한 공공외교는 스포츠 공공외교로써 그 어떤 공공외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¹⁰⁸⁾.

스포츠의 분야는 다양하고 그 범위는 넓다. 스포츠 분야 중 우리의 전통무예 택견과 해동검도는 한국인의 얼을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이자 선조로부터 전승되는 민족 고유의 스포츠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산업화, 현대화, 서구화된 사회에 살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오랜 시간 잊고 살아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관심이 높아져 정치권에서도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전통무예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논문도 많아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우수한 전통문화인 전통무예를 활용하여 대일 청소년

108) Maryam Asghar는 “Impact of Sports Diplomacy on Peace-Building.(2019)” p.22에서 스포츠는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일임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교류 스포츠 공공외교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실시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에서 역사적 교훈을 배워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도 한일관계처럼 오랜 기간 역사적 아픔과 적대적 감정으로 인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유럽의 통합을 위해 양국의 적대적 감정과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함을 공동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국의 청소년교류를 제시한 것이다.

양국의 정상이 청소년교류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갈등을 치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양국의 미래 세대를 향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1963년 엘리제 조약이 체결된 이후 2006년까지 약 40년간 700여만 명의 양국의 청소년들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겪어 왔는데, 그 밑바탕에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 청소년교류의 의무화, 청소년교류 사무국이라는 독점 기관의 설립 등 삼박자가 골고루 체계적으로 작동하였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관계 개선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우리 역시도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여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는 결국 한일관계의 긍정적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¹⁰⁹⁾

현재 한일 양국의 청소년교류는 교육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써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일 중고생교류,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상대국 언어 선택 고교생 교류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며,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또는 스포츠 교류 관련 프로그램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교류 프로그램에 일본 청소년 상대로 한국의 전통무예를 체험하는 수업을 개설 혹은 양국의 전통무예를 상호 교환하여 체험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한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는 박지영(2014)의 연구¹¹⁰⁾에서 보았듯이 공유된 소통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동료애와 동질감을 더욱 잘 느끼게 하므로 상호 이해와 협력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일본 청소년들의 청소년교류를 통한 한국의 전통문화인 전통무예

109) 강혜란·홍지유, 프-독 화해 56주년...獨 대사 “한일관계, 청년 세대 교류에 달려”, 중앙일보, 2019.1.24.

110)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p.87.

택견과 해동검도를 수련하게 됨으로써 다음의 네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수련에 참여하는 일본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골격 및 체력의 성장, 운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정신수양에 도움을 받게 된다. 허준호(2005)의 선행연구¹¹¹⁾에서 볼 수 있듯이, 택견과 해동검도의 수련은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속하는 일본 청소년들에게 근골격계 및 체력의 성장이라는 개인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한다. 또한, 우리 전통 무예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예를 통한 참 인간 완성에 있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¹¹²⁾ 즉, 무예 수련을 통한 전인교육이 운동의 기본 철학인 셈이다. 이런 무도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전통 무예 수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 고유의 민족정신과 전통사상 속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정신수양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흡수하여 자아실현과 정신수양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수련에 참여하는 일본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를 배워 한국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신체 활동에는 한국의 문화로 표현되는 한국인 특유의 예절 및 관습이 오랜 세월에 걸쳐 투영되어 있기에¹¹³⁾, 일본 청소년들의 택견 및 해동검도 수련은 수련과정에서 체험하는 이러한 정신적 측면을 자신의 내면에서 구현시켜 한국문화를 습득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험적인 접근과 앎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곧 일본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에 대해 친밀감을 더 잘 느끼도록 만들어 신뢰감을 쌓게 하므로,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이 수월하도록 도울 것이다.

셋째, 일본 내에서 택견과 해동검도를 수련하는 사람들끼리 동질감과 동료애를 느껴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한국 전통무예 친한(親韓) 그룹이 일본 내에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과 택견과 해동검도를 수련하는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통한 공유된 감정의 소통은 국적을 초월하여 끈끈한 인간적 유대감을 증분

111) 허준호. “태권도, 해동검도, 택견수련이 초등학교의 신체구성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2006)” pp.50-51.

112) 본 연구 p.48, p.57.

113) 박지영.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2014)” p.86

히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끈끈한 유대감은 그동안 상호 간 마음속에 쌓인 적대적 감정의 골을 메우는데 아교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교류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무예를 일본의 청소년들이 수련하게 된다면 일본 내 한국 전통문화 소비의 확산을 가져와 택견과 해동검도를 제외한 한국의 다른 전통문화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게 하여 청소년교류에 참여하지 않은 평범한 일본인들에게도 한국을 향한 관심 제고 및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곧 인적·문화적 교류의 지경을 넓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대일 청소년교류 스포츠 공공외교의 방법으로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전통무예인 택견과 해동검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택견과 해동검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전통과 연결되는 것이요, 한국인의 민족적 정서를 이해하고 한국의 역사를 바르게 알도록 돕는 것이다. 결국, 대일 청소년교류 스포츠 공공외교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세대가 마음에 남아있는 적대적 감정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이해와 협력의 차원을 높여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도록 도울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어 문헌

- 강대환(2003). **한국과 일본의 검도문화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석찬(2008).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 강효백(2018). **중국 통제로 바로 알기**. 경기도: 이담북스.
- 고동영(1995). **韓國上古體育史**. 서울: 한뿌리.
- 고성빈(2017). **동아시아 담론의 논리와 지향**.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구희서(1995). **운동치료학**. 서울: 대학서림.
- 김관민, 이범렬(2005). 해동검도의 가치와 그 발전 방향. **충남대학교 아시아지역 연구소 7.-** :69-87.
- 김두섭(2009). **傳統武藝 택견에 내재된 風流的 特性 研究**.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 김병호, 마영삼, 손선희, 연상모, 이상덕, 한의석, 한충희, 홍승목, 황순택(2020). **공공외교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 김슬예(2011). **초등학생들의 해동검도 수련몰입과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김영만(2020). **택견 근현대사**. 부천: 글샘.
- 김영만(2022). **택견사**. 부천: 글샘.
- 김영선(2019). **현대 태권도의 원류, ‘오대관’의 형성과 사적(史的) 의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의환(2009). 한국의 전통무예진흥법(傳統武藝振興法)과 시행령(施行令) 제정, 전망. **대한무도학회지**, 11(1) : 263-291.
- 김익상(1998). **한·미간의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정우(2015). **해동검도의 발생배경과 가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 김정호(2009). **(정본) 해동검도**. 서울: 학민사.
- 두산 동아 편집부(2003). 「**새국어사전**」 제4판, 서울: 두산동아.
- 민성홍(2003). **국가 대형이벤트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박 권(2002).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경서(2002). **지구촌정치학**. 경기도: 법문사.
- 박성호(2021). **고구려의 혼**. 서울: 좋은 땅.
- 박성호.(1998). 동이무예 택견.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 : 32-37.
- 박옥이(2003). **전문인 선교를 위한 태권도 선교의 역사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박우호(2006). **태권도가 민간의교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박지영(2014). **프랑스인들의 한국 전통 신체활동 참여 과정과 그 의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찬영, 버질 힐라이어저(2021). **세계사를 보다3**. 서울: 리베르스쿨.
- 백혜선(2014). **청소년자아정체감형성을위한교회교육의접근방법**.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 스테판 모로우 저, 스포츠정치외교연구회 역(2007). **축구, 세계인의 스포츠: 유럽 프로축구의 정치경제**, 파주: 인간사랑.
- 신영호(2007). **한국무예 변천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신창화(1994). **한국 외교의 문화적 수단으로서의 태권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안근아, 이재봉(2002). 태권도와 李元國. **한국스포츠리서치**, 13(2), 385-394
- 안세영(2011). **일본 공공외교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안자산(1947). **朝鮮武士英雄傳**. 서울: 盛文堂書店.
- 양진방(2002). 전통무도의 세계화 방안. **武道研究所誌** 13(1) : 91-98.
- 엄재영(2016). **태권도 태극품새와 가라테 카타 평안의 기술체계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에드워드 버네이스(Bernays, Edward) 저, 강미경 역(2009). **프로파간다: 대중 심리를 조종하는 선전전략**. 서울: 공존.
- 유호근(2013). 스포츠 교류·협력의 국제정치: 공공외교적 함의. **평화학연구** 14(1) : 53-74.
- 유호근(2015). **현대스포츠외교사: 올림픽을 중심으로**. 파주: 인간사랑.
- 윤강로(2012). **스포츠 외교론**, 전자책, 글누림 출판사.
- 윤강로(2012).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 서울: 대경북스.
- 윤광희(2009). **해동검도의 검형 분석**.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 윤오영(1976). **방망이 깎던 노인**. 경기도: 범우사.
- 윤종완(1995). 민간외교 수단으로서의 태권도의 역할. **상명대학교 社會體育研究** 3.- : 55-63.
- 윤희원(1979). **社會化와 Communication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경명(2011). **태권도용어정보사전**. 서울: 태권도문화연구소.
- 이기태, 김두승, 송화섭(2013).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 이대희(2002).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공존: 스포츠의 세계화를 통한 민족주의. **21세기 정치학회보** 12(2) : 101-121.
- 이명기(2009). **루소의 자연주의 체육사상**. 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이상호(2009). **변화하는 미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한미관계**. 서울: 시대의창.
- 이영호(2020). **전통무예로서 해동검도의 태동과 발전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 이주열(2014). **百濟 七支刀 銘文의 年號와 제작연대**.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이충영(2002). **태권도 세계화가 한국 스포츠외교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이태신(2000). **체육학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이호영, 유현석, 최경근, 이진택, 이충미, 김세환(2009). **스포츠외교론**, 서울: 시간의 물레
- 임새봄(2009). **근대 태권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지연, 장덕선, 김나라(2014). 청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2) : 55-69.
- 임현진(2002). 전 지구화, 한국사회 및 스포츠. 『계간사상』 여름호
- 정경화(2002). (重要無形文化財 第76號)택견원론. 서울: 보경문화사.
- 정기웅(2009). 스포츠와 공공외교 수렴 가능성의 모색: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1(2) : 1-34.
- 정기웅(2018). 스포츠 외교의 신화. 서울: 박영사.
- 조지프 나이 저, 홍수원 역(2004). 『소프트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 최만립(2010).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 스포츠외교의 산증인 최만립이 전하는 30년 스포츠외교실론. 서울: 생각의 나무.
- 최명수(2008). 태권도, 가라테, 우슈의 기본자세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최찬묵(2005). 七支刀와 4세기 百濟의 對倭關係 研究.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최현섭(2014). 한국과 일본검도의 역사 및 문화.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허준호(2006). 태권도, 해동검도, 택견수련이 초등학생의 신체구성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황선혜(2006).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가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 **EU연구** -19 : 67-90.
- Coakley, Jay 저. 안민석 · 정홍익 · 임현진 편저(2002). 사회이론은 스포츠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새로운 스포츠사회학』. 서울: 백산서당.
- Melissen, Jan 저. 박종일, 박선영 공역(2008). **신공공외교: 국제관계와 소프트파워**. 경기도: 인간사랑.
- Snow, Nancy(2013). **21세기 공공외교 핸드북**. 경기도: 인간사랑.
- YBM시사 편집부(2002). 「엘리트 영한사전」 서울: 시사영어사.

기타 문헌

고려사.

무예도보통지.

일본서기.

재물보.

조선상고사.(신채호)

해동죽지.(최영년)

영어 문헌

Bairner, Alan (Edt). (2005). *Sport And The Irish Histories, Identities, Issues*.

Dufour Editions.

Beacom, Aaron and Rofe, Simon J. (2018). Post-match recovery and analysis:

concluding thoughts on sport and diplomacy, J. Simon Rofe (ed.), *Sport and Diplomacy: Games within Ga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Bo Ra Nam. (2012). “Sport and Public Diplomacy in Advanced Countries:

Cases of UK, Australia, and Canada.”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대한민국.

Cooley, Lawrence, (2018). The governance of sport in deeply divided

societies: actors and institutions in Bosnia and Herzegovina, Cyprus and Northern Ireland, J. Simon Rofe (ed.), *Sport and Diplomacy: Games within Ga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David, Rowe. (2018). Football, diplomacy and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Simon Rofe (ed.), *Sport and Diplomacy: Games within Ga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Dowse, Suzanne. (2018). Mega sports events as political tools: a case study

of South Africa’s hosting of the 2010 FIFA Football World Cup, J. Simon Rofe (ed.), *Sport and Diplomacy: Games within Ga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Drephal, Maximilian. (2018). Contesting independence: colonial cultures of sport and diplomacy in Afghanistan, 1919 - 49, J. Simon Rofe (ed.), *Sport and Diplomacy: Games within Ga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Eaton, Joseph. (2018). Decentring US sports diplomacy: the 1980 Moscow boycott through contemporary Asian - African perspectives, Simon Rofe (ed.), *Sport and Diplomacy: Games within Ga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Galtung, Johan. (1991). "The Sport System as a Metaphor for the World System." F. Lindry, M. Lindry and M. Yerles, eds *Sport: The Third Millenium*. Quebec: University of Laval Press.
- Gomez, Carole. (2018). Boycotts and diplomacy: when the talking stops, Simon Rofe (ed.), *Sport and Diplomacy: Games within Ga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eil, Alan L. (2007). "Voice of America(Paperback)." Columbia Univ Pr.
- Josef Joffe. The National Interest. (2001). "Who's Afraid of Mr. Big?"
- Lindsay Kropke, R. (1974). "International sport and the social sciences."
- Maryam Asghar. (2019). "Impact of Sports Diplomacy on Peace-Building."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Mitrany D. (1948).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24 (24): 350-363.
- Nye, Joseph S. Jr. (2008).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6, Public Diplomacy in Changing World.
- Nye, Joseph S. Jr. (2020). *Do Morals Matter?*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Rethinking public diplomacy. (2019): A synthesis of the conceptualizations of public diplomacy in public relations and diplomacy research, Global Encyclopedia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Rowe, D. (2011). *Global Media Sport. Flows, Forms and Futures*. Bloomsbury, London.
- Shuman, Amanda. (2018). Friendship is solidarity: the Chinese ping-pong team visits Africa in 1962, Simon Rofe (ed.), *Sport and Diplomacy: Games within Ga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Tulli, Umberto. (2018). ‘They used Americana, all painted and polished, to make the enormous impression they did’: selling the Reagan revolution through the 1984 Olympic Games, Simon Rofe (ed.), *Sport and Diplomacy: Games within Ga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Vaughan, Rachel. (2018). ‘Chinese rings’: the United States, the two Chinas and the 1960 Squaw Valley Winter Olympics, Simon Rofe (ed.), *Sport and Diplomacy: Games within Gam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독일어 문헌

Amtsblatt der Europäischen Union. *RICHTLINIE* 2004/83/EG DES RATES vom 29. April 2004(P.9 INHALT DES INTERNATIONALEN SCHUTZES)

신문 · 언론

- 동아일보 신동아(2006.8.14.) “75세에 송판 깨는 美 태권도 황제 이준구”
- 동아일보 (2021.11.21.) “태권도복 입은 트럼프… 명예 9단증 받아”
- 매일경제 (2021.10.6.) 『소프트파워 창안 美석학 “한국, 국제사회서 어젠다 확대 필요”』
- 서울신문 (2018.12.20.)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선전은 그만, 방빠” ... 서방서 설자리 잃어가는 中 공자학원
- 세계일보 (2019.09.19.) “8월 訪日 한국인 2018년比 48% ↓”
- 조선일보 (2000.10.6.) [사람들] 클린턴 가르친 ‘미 태권도 대부’

중앙일보 (2018.6.28.) “독일·프랑스 청소년 연 20만명 교류 … 한국·일본도 인적·문화 교류 늘리자”

중앙일보 (2019.1.24.) 프-독 화해 56주년…獨 대사 “한일관계, 청년 세대 교류에 달려”

헤럴드경제 (2015.1.5.) “태권도 송무관 노병직 옹 30년전 친필편지”

KBS news (2013.12.12.) [이슈&뉴스] 독·불, 민간교류·공동교과서 화해 물꼬

Oh my news (2019.12.29.) “철천지원수 프랑스-독일, 어떻게 최고 우방이 됐나”

인터넷사이트

괴테 인스터투트 홈페이지: <http://www.goethe.de>.

국기원 홈페이지: <http://www.kukkiwon.or.kr>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한일교육교류: <http://www.niied.go.kr/user/nd75863.do>

김정호 인터뷰: www.vanchosun.com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2019: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794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

유시민 인터뷰(유시민이 전하는 당시 독일에서 차범근의 엄청난 위상!! | KBS 210610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2KhJk6WcuM8>

한국콘텐츠진흥원(택견):

https://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content_id=cp060600020001

해외홍보문화원, 2020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https://www.kocis.go.kr/ebook/ecatalog5.jsp?Dir=366>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https://www.un.org/millenniumgoals/bkgd.shtml>

Nicholas J. Cull, “Public Diplomacy” before Gullion: The Evolution of a Phrase(2016):

<https://www.uscpublicdiplomacy.org/blog/public-diplomacy-gullion-evolution-phrase>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www.pmg.co.kr>

ABSTRACT

The Sports Public Diplomacy of Korea with Japan:

- Focusing on the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Youth Exchange -

Kim, Yeon Tae

Dep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We have a shameful history of being colonized by Japan for 36 years. The shame, insults, hardships, and pains we endured at that time were difficult and dark times beyond words.

On August 15, 1945, we were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on August 15, 1948. Since then, although we have been made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until today, it is true that the hostile feelings against Japan that remain in our hearts have not been completely resolved, and relations with Japan have not made much progress.

On October 8, 1998, Kim Dae-Joong government of Korea signed the Korea-Japan Joint Declaration (Japanese:日韓共同宣言)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eaffirmed that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ve a cooperative and close relationship.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issues to be resolved, such as the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and the issue of territorial sovereignty.

Various ways can be suggested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but in order to wash away the pain of the past and improve into a constructive

and future-oriented relationship which is originated from mutual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 recommend highly 「Public diplomacy with an emphasis on youth exchange through sports」 which is capable of building trust and friendship from the private level step by step.

If we make the youth of Japan who will become the leaders of future generations in Japan learn and practice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which are Taekkyeon and Hae-dong Gumdo, they will understand Korea better. Because exchanges through sports (traditional martial arts) can act as a positive factor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s it allows the shared feelings of communication to flow smoothly and thus a sense of homogeneity and friendship can be better felt.

In addition, if our youth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Japanese martial arts as a part of sports exchange, their understanding of Japanese culture will increase and they will be able to understand Japan better, and it will make the path which is going to mutual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asier.

As we can learn from the case of youth exchanges between Germany and France, in order to work the youth exchange system effectively, the political leaders of the older generation must create an stable environment for youth exchanges and let continuous exchanges and promoted exchanges keep going.

Through public diplomacy with Japan, which focuses on youth exchange through sports (traditional martial arts), I am looking forward to building trust and friendship, breaking down the walls of hostile emotions caused by past pain history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more deeply and widely.

▶ Keywords: Public diplomacy, Sports Public diplomacy, Youth Exchange with Japan,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